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進

社說

獨西關係의 險惡化
─파로스號事件을關聯코─

一

客年七月十八日 프랑코將軍一派의 左翼政權에 對한 叛旗揭揚으로 全西班牙에 蔓延된 西班牙內亂은 同月廿三日 아자나政府의 英佛에 對한 叛軍鎭壓援助要請으로 國際問題化한 以來 蘇佛兩國을 中心으로한 人民戰線國家와 獨、伊、葡三國을 中心으로한 國民戰線國家와의 對立을 보게되여 그後 佛國의 斡旋으로 不干涉委員會의 成立은보앗스나 特別한 效果는보지못하고 兩大陣營의 對立抗爭은 繼續激化되어 不干涉委員會야 잇든업든 兩大戰線國家의 自派政權援助를 爲한 義捐金募集、軍需品輸送、義勇軍派遣等의 積極行動이 露骨化하게된것은 通信報道에依하야 周知하는바 事實이어니와 이와가티 國外列强의 積極的援助가 잇스니만치 西班牙內亂은 勃發以後 六個月이라는 긴歲月을보내도록 鎭壓되지못하고 混亂그대로 새해를 마지하게되엿는데 年末에 이르러 바스큐赤色政府의 獨逸汽船 파로스號 拿捕事件으로 獨西關係의 險惡化는勿論、西內亂을 圍繞한 歐洲政局의暗雲은 一層더濃厚化하게되엿다。

二

所謂 파로스號事件이라는것은 去十二月二十六日 獨逸汽船파로스號가 西班牙빌바오港 附近에서 바스큐赤色政權軍艦에게 拿捕된 事實을 指稱하는것이다。獨逸政府는 파로스號의 拿捕報道를接하자 곳 同船釋放을 爲하야는모든必要한手段을 取하겟다는旨를 聲明하고 實力으로서 救濟하겟다는決意下에 期日數隻의軍艦을 西班牙領海內로 派遣하는等 자못强硬한 態度를 보엿고 또 英佛兩國도 事態險惡化를未然에防止할 次로 西班牙에 파로스號의釋放을 要請하엿스나 바스큐自治政府의 態度도 자못强硬하야 파로스號釋放要求를 斷乎拒絶하고 다음과가튼 聲明을發하엿다。

파로스號는 戰時禁制品인 軍需品을 滿載하엿고 西領海內에서 拿捕된것이므로 釋放과 가튼것은 全然 問題되지안는다。

三

그러면 今後 파로스號事件을中心으로한 獨西關係乃至 歐洲國際關係는 어떠케 展開될것인가? 外電에依하면 五日來의獨逸政府態度는 매우 緩和된感이잇다。即 獨政府는 五日發出한 西班牙獨逸艦隊司令官의 파로스號釋放要求에關한『最後通牒』을『最後警告』라고 訂正한 同時에 今後西班牙商船을 拿捕함과如한 報復手段을 中止하야 事件의 圓滿解決을 圖할터인데 비록 西政府가 끗까지 파로스號를 釋放치안트래도 流血의慘은 避하고 現在抑留中에잇는 西班牙商艦二隻을 賣却하야 代金은 叛軍政府에對한 計算으로하겟다는것이다。

四

獨政府의 態度가 이가티緩和된理由는 國際關係의 惡化를念慮하는 [illegible] 太利의 [illegible]에 傳하는 此際에 [illegible]案에對하야 英佛政府가 獨政府에 期[illegible]閣附로 通告하고 萬若此를 拒絶하는時는 斷乎 海上封鎖를斷行하야 不干涉協約의 實을擧한다는 英佛兩國의 意見一致에 基因한것이다。그러나 英政府의 强硬態度는 아직 未知數인 同時에 只今도 [illegible]하야 義勇軍[illegible] 伊太利가 英伊紳士協定으로 [illegible]을 [illegible]하라고 [illegible]하기는 時期的 事의 [illegible]이 잇다。따라서 獨逸의 對西態度도 一時的 제스추어에 不過할는지 모르니 마치 西班牙內亂을 圍繞한 歐洲政局은 아직아모 解決의 曙光이 보이지안흘뿐아니라 파로스號事件을 中心으로、今後더욱 國際關係는 微妙險惡化될것으로 觀測된다。

政府秕政糾彈코저 各派의陣容準備
八日一齊히初會合열고對議會方針을決定
今期議會大波瀾豫想

【東京電話同盟】再開議會는 마치내 旬餘後에 迫到되여 各派가 모도政府의 秕政을糾彈하고자 今八日一齊히 初會合을열고 陣容을 整備하는 同時에 對議會策에對하야 協議를 決定하기로되엿다 그리고 今議會劈頭에서 가장痛烈한 論戰이 豫想되는것은 政府의 外交政策에 對한 可否인데 各派는 一齊히外交失敗를責하리라고 嶄然나리고 當面의 議會에서 國同의外交經過의 緊急動議問題로부터 벌서 取의 論難의 戰端이열리여 重大紛糾를 胚孕한대로 新春에持越되여잇는바 政府도 그對策에 苦慮하고 廣田首相 有田外相間에 難局打開方策에 對하야 協議를 進하고잇는데 一方電力國營 軍事參謀振과 產業資의調節 政府가 聲明할 七大國策의 不實行等을 捕捉하야 政民一致하야 政府를 論難하고자相當히 强硬한態度를示하는데 民政黨은 町田總裁를陣頭에세우고 政友會는 濱田國松氏로하야금 施政一般에對한 質疑를行케하고자 着着準備를進行하고잇다 八日의各派初會合을契機로하야 各各結束을堅固히하고 一路政府問責에 驀進할것으로推測되며 政機切迫에따라 益益今議會의紛糾波瀾을豫想케되엿다

警務局長等 國境第一線訪問

匪賊과싸우고 國境嚴寒下에 國境을死守하는 國境警備警察官에 對하야 激勵와慰安을爲하야 三橋警務局長은 伊藤警務課長을帶同하야 來廿七日 京城發約二週間豫定으로 咸南、平北國境第一線을巡視하고 慰問激勵를할터이다 또古川圖書課長은 中旬頃京城發 咸北國境線巡視에赴할豫定이다

平生文相、끗까지 旣定方針으로邁進
義務敎育延長問題

【東京電話同盟】義務敎育八年制에對하야 貴族院政友會方面에서는 今議會의 豫算案審議에當하야 全般的學制改革과 關聯시켜 여러가지로 論議할라는 傾向이잇고 따라서 平生文相은 그前途多難함을 豫想하고 萬全의對策을講究하고잇는데 七日午前九時半 廣田首相을 官邸에訪問하고 義務敎育八年制及全般的學制改革에關한 方針을述하고 對議會策에對하야 協議를 遂한結果 全然意見이 一致되엿스므로 어데까지던지 所信에邁進할決意를 堅持하고 同十時辭去、即時本省大臣室에 河原次官 菊池普通學務局長等의 參集을求하야 右의結果를 報告하고 여러가지로 對策을 協議하엿다

政友斷乎反對

【東京電話同盟】義務敎育年限延長에 關한 法律案은 今期議會에 提出되기로되여잇는데 이에對하야 政友會에서는 依然히 反對態度를 緩和치안코 相當히 强烈한 論難을 加한後 이成立을 拒否하는듯하다 即政友會로서는
一、基礎敎育을 主旨로한 小學校의 六個年의 過程으로써 모르다하지안코 我國情에 비최여 眞正하게 必要한것은 小學校卒業者에게 公民으로서의 敎育機會를 與하는 靑年學校의 義務化이다 文部省이 企圖하고잇는 高等小學校義務化에는 左와如한 缺點이 指摘된다
가、從來의 小學校敎程及 高等小學校敎程으로서는 靑年敎育의 實을 擧할수업다
나、義務敎育年限만을 떼여내는 것은 學制全般과 여러가지 矛盾을生할것
다、敎育年限延長은 學制의全般的改革의 一翼으로 考慮할것이라고하고잇고 同時에 이러한 重要改革에 着手함에 際하야는 愼重한 態度를 缺하고잇는點에 關하야 痛烈한論鋒을 向할듯하다

佛、獨逸側에對하야 某種의諒解賦與?
殖民地再分配를考慮할것을對象으로하고
軍備政策變革要請乎

【伯林七日發同盟】伯林駐箚佛國大使 퐁세氏는 過般來數次에亘하야 샤하트經濟相其他獨逸政府首腦部와 무엇인지 協議를거듭하고잇섯는데 七日伯林出發巴里에 가기로되엿다 巴里에서는 델보外相과 會見하야 右協議에 基하야 獨逸政府의 意向을傳할 모양인데 最近英佛兩國政府間에「歐洲政局의全般的處理」의 前提로 獨逸에對하야
一、軍備經濟上에 對하야 或種의 諒解를與하고
一、殖民地再分配에 對하야 特히 考慮할것
을對象으로 獨逸政府의 經濟軍備政策에 對하야 根本的變革을要請한 事實이잇서 퐁세大使의 歸國으로 以上의交涉은 다시具體化하지안흘가고 豫想된다 一方히틀러總統도 近日宣言其他方法으로 全歐洲에 對하야 平和再建의 必要를 力說할모양이라 한다

汪精衛氏、歸國後에 大總統에就任乎
國民政府에서는歡迎代表를香港까지派遣
西南派도密使를派遣

【上海七日發同盟】國民政府의招電을 接하고 急遽히 歸國途上에올은 汪精衛氏는 來十二日香港에到着할터이다 同氏는 來三中全會에잇서 第一期大總統에推薦되기로 內定되여잇서서 國民政府는 歡迎代表로서 周佛海、周啓剛兩氏를 香港까지 派遣시키기로 決定하엿다 兩氏는 九日 上海發香港에 向하기로되엿다 또 汪精衛氏의 歸國에對하야 西南側에서도 이미 新嘉坡까지 密使를 派遣한 事實이잇스며 또 汪精衛氏를 即時 南京에 赴하게하지안코 廣東에머물게하야 汪氏를 首班으로한 廣東、廣西聯繫를 强化시키고자하는 策謀도 進行하고잇서 이때문에 李宗仁氏는 스스로桂林으로부터廣東에赴하게될것이라한다

□美山 黃庸河氏 試筆

蔣張妥協結果로 抗日氣勢强化乎
國交調整에重大한危局招來
陸海外三相重要協議

【東京電話同盟】西安事變勃發로 監禁되엿든 蔣介石氏가 過般突然釋放됨에 이르럿슴으로 그裏面에는 重大한 密約妥協條件이 伏在한것으로 關係當局에서는深甚한 關心으로서 眞相判明을기다리고잇든바 七日到着한 情報에依하면 蔣、張間에 重大密約이 成立되여잇든 事實이 明白케되야 關係方面을 刺戟하고잇다 蔣、張妥協條件에 蔣氏는張의要求인 抗日連英、米、蘇를全的으로 承認하고 또共產軍討伐을 中止하고 張學良軍、楊虎城軍에게 軍費로、一千萬元의提供을 確約하고 中央의 要人中親日分子를 罷免하고 拘留中의人民戰線派及共產黨員의 釋放을實行하고 張學良軍討伐의 一部의處置를撤回하야 事變前의狀態에 復歸케함에잇는바 此等條件은 이미 蔣氏에依하야 承認되고 잇슴으로 南京政府今後의 動向은 더욱抗日的이되고 全中에擴大된 抗日戰線의 强化를招來할것은 必至이라고 보이는바 日中國交調整에 重大한危局을 招來할念慮를 多分히가지게되엿다 따라 陸海外當局으로서도 一大轉換期에 處할方策樹立에 對하야 深甚한 考慮를拂할必要를 가지게되엿슴으로 八日初閣議에서는 有田外相寺內陸相으로부터 眞相報告를行하는同時에 閣議後 陸海外三相會議를開하야 重要意見을 交換協議하기로될모양이다

外國爲替管理法
大藏省令으로 一月八日公布施行

【東京電話同盟】政府는 爲替의現勢에處할 應急處置로 左記要項에依하야 輸入貨物代金의 決濟及 外國爲替銀行의 海外指圖에依한 制限에關한 外國爲替管理法에基한 大藏省令을 一月八日公布하야 施行키로되엿다

記

一、輸入爲替代金決濟를 爲하야 爲替取引及 信用狀取得은 原則으로 許可를要함事

二、右取締의 對象이될 爲替取引에잇서서는 外國爲替買入外國에서의 圓爲替賣却、外國送金及 委託支拂等外 本令施行前締結한 外國爲替豫約의 實行을含할事

三、左記境遇에는 爲替取引又는 信用狀取得에 對하야 許可를要치아니할事

가 一個月을 通하야 三萬圓相當額以下인時

나 許可를受하고 又는 許可를要치안코 取得한 信用狀에基한 爲替取引을하는 時 (本令施行前取得한 信用狀에 基한 爲替取引은 許可를要함)

다 本令施行의際 輸入濟의貨物 又는 外國에 積出濟의貨物에關한 荷付爲替手形決濟를爲하야 必要한時

二、本令施行後 一週間內에 外國에서 積出한 貨物에 關한 荷付爲替 手形決濟를 爲하야 本令施行前 이미積出濟의 外國爲替의 豫約의 實行을할時

四、無爲替輸出代金을 輸入貨物代金으로 充當함에 對하야는 許可를要함事

五、貨物을 輸入하는것은 輸入에 必要한 決濟를 하기爲하야在外 外貨資金 外貨債附金等을 處分하고 又는 此等外貨資產을 擔保로하야 外國에서海外借入金을 함에對하야는 許可를要함事

六、外國爲替銀行은 顧客의爲替取引及 信用上取得이 適法임을 確認할義務를 [illegible]

七、外國爲替銀行이 海外指圖에依하야 銀行에對한 支拂을할에對하야는 一口一萬圓 相當額以下의送金 荷付爲替手形又는 支拂指圖書의 支拂을除하고 許可를要함事

八、昭和十一年中에 五十萬圓以上의貨物을 輸入한者는 昭和十年及十一年中의 輸入貨物代金決濟實績書를 提出할

九、輸入貨物代金決濟에 必要한 取引에對하야 許可를 受하고 該貨物을 輸入한時는 各月分의輸入報告書를提出할

(大藏省外國爲替管理部發表)

昭和十二年 大藏省令 第一號 (輸入貨物代金의 決濟及 外國[illegible])

軍警一致를目標 每月一回懇談會
軍部와警務局間에

三橋警務局長 着任以來 官民一致의 根幹으로서 爲先軍警의協力一致를 論하고잇든바 各種警備問題는 軍部及警務局間에 圓滑히解決을 지엇슴으로 또 그連絡의 緊密强化를 圖하기爲하야 今年부터 每月一回式 軍司令部 二十師團 憲兵司令部 警務局各首腦部及 中堅人物이 會合을열고 當面한 諸問題에 關하야 隔意업는 意見을交換하고 半島警備에關한 具體的事項도 말하야 相互間意思疏通을 圖하기로하얏다 第一回會合은 來十六日懇親會를 兼하야 開催하고 軍警一致의 徹底를 期하기로되엿다

外國爲替管理法 施行細則

(前略) 支拂과의 [illegible]에 關한 外國爲替 管理法에 基한命令의件)

一、輸入貨物代金의 決濟에 必要한 爲替取引에 關한 許可申請은 營業上 [illegible] 輸入貨物에 關한 決濟에 必要한 [illegible]에 관하야는 本令의 施行에 關係잇는 時에는 左記事項에 依하야 本令의規定에 依한 許可申請書를 提出하야 方針인바 [illegible]

그리고 本令施行의際 이미 買付商談成立後 [illegible]의 輸入貨物에 關한 것은 本令施行後速히 又는 委託販賣(其他輸入者의 注文에 基하지안한 輸入貨物에 關한 것은 貨物의 輸入될것을 知得한時는 速히 許可申請을 할것

二、外國爲替銀行은 本令의 規定에 依한 顧客의 爲替取引又는 信用狀取得이 適法인것을 確認할을 要하므로서 外國爲替銀行과 當該取引又는 行爲를 할라고하는者는 許可證의 提示、其他의 方法에 依하야 適法인것을 證明할것

三、許可申請書의 記載事項에 對해서는 昭和八年大藏省令第八號(外國爲替管理에 關한 施行手續)를 準用할것을 貨物의 輸入取引關係等 詳記를 要함으로 申請에 際하야 될수잇는대로 當部又는 갓가운日本銀行에 照會하고 그指示를 受할

四、本令의 規定에 關하야 疑義가 잇을時는 當部又는 갓가운日本銀行에 照會하고 法令의 違反이 업도록 注意하게할것

人事·集會

◇오·지·마ㅣ쉬氏(在京米國總領事) 新年人事次 七日來社

◇丹下警務局保安課長 來十一日京城發四日間豫定으로 新京을 訪問 滿洲警務當局및 關東憲兵司令部首腦部와 會見하야 昨年十一月圖們에서의 三橋警務局長、東條關東憲兵隊司令官의 會見에基하야 主로 赤化防止및 嚴寒期 警備連絡에 對하야 安協을 遂行할터이다

◇久間健一氏(道小作官) 新任人事次七日來社

◇下城義三郎氏(遞信副事務官) 新任人事次七日來社

◇滿鐵道局理事 猪田監理係長、酒井書記同伴 六日京城發渡東

夕刊後市況 七日

◆朝 取 短 期◆

	後引	高價	低價
朝取	三三〇	三三〇	三三〇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一六〇〇	一六〇〇	一六〇〇
同新	一六〇〇	一六〇〇	一六〇〇
商船新	—	—	—

◆東 京 短 期◆

	後引	高價	低價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 阪 短 期◆

	後引	高價	低價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涉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 短期 氣配◆

大新	八五七〇	(一〇低)
鐘新	二〇六八〇	(一〇低)
日產	八〇〇〇	(一〇低)
東新	一五二六〇	(二〇低)

◆橫濱 生系 後引◆ 當限九〇二〇〇 先限八九二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八五四〇 先限 八五一〇

今日本紙朝刊 夕刊合十六面

普通文官講義
判任官高等官辯護士司法官等年々續出

立志의新年！ 今年은 꼭官界로進出

創立廿五年의봄 二大講義錄發行 通信敎育界의萬丈의氣焰를吐한育英殿堂

獨學成功者이一萬餘實斯界驚異의的

一年以內の獨學で判任官

本會는創立以來廿五年의經驗을닥고小學校卒業程度의學力을가진者이라도一年以內의獨學(成速科는二個年乃至半年)으로普通文官試驗또는 裁判所書記試驗에合格하게된다 (前年의岡山普通試驗에는 總合格者二百八十名中百八十餘名이本會會員) 이러한試驗合格者는 判任官의資格이잇슴으로 合格하자마자모도다토아 日本內地는勿論臺灣朝鮮滿洲國等에官公署에 奉職하고잇다 (就職者의謝狀은每月機關雜誌에滿載)獨學成功希望者는오라！

夏の朝鮮普文征服

朝鮮總督府에서每年八月文官普通試驗을施行하는데本會에서는全合格者의過半數를占하는會員會友合格者를내고잇다또한朝鮮普文은合格者는곳採用한는다方針下에施行함으로本會會員會友合格者는 全道各官衙에充滿하고잇다諸君도지금入會하면今年녀름朝鮮普文에는틀림업시合格되다어서오라

官吏大增員

今年부터各省에서官吏의大增員을하게되여今後는試驗合格의有資格者는옴쑥優先的으로採用하게되엿다또한增員은判任官級의靑年들을採用함으로諸君은하로速히本會에入會하야普文또는裁書合格者가되고이機會에官界로進出하라

百廿頁 (一冊子) 進呈

○案書에「本新聞名記入申込次第會則附上記有益冊子 無代進呈』

東京市 澁谷區 明治神宮表參道
日本通信大學 法制學會
振替東京 二三四五六番

毛筆とペン字と手紙併講

受驗、就職、社交、緣談에도、또能筆인사람은十割이나所得이된다本講習錄은現代書壇의一流大家諸先生이總出하야每卷四十版枚식美麗한各樣의見本과七十餘頁의懇切明快한講義를合하야六個月全八卷毛筆과ペン字와便紙를이興味津津하고도能熟할수잇게되엿다

現代書道講座

日本一の指導陣

總裁 勝田主計先生
會長 澤野民治先生
講師 吉田苞竹先生
同 高塚竹堂先生
同 松本芳翠先生
同 松井如流先生
同 山下雲谷先生
同 佐藤示右先生
同 山野紅蘭先生
同 田邊古村先生

全八卷 完成

▽四六倍判、每卷本文講義七十頁、外手本四十八枚附き
▽全八卷中、二卷はペン習字に充て六ヶ月にて卒業
▽特製和洋兩紙使用和綴美本
▽每月優秀作品に賞品
全卷同送 (朝鮮臺灣滿洲は七十五錢)

手本付見本書無代進呈

●案書に「で見た」とか當書本人用」として住所氏名明記申込次第。

東京市 澁谷區 穩田一ノ四 (振替東京八八八八八番)
現代書道講習會

◇一月七日부터三日間夜晝公開 新春第三週紹介
危險地獄隧道 (殺人地獄隧道)
◇코롬비아映畵特作全發聲日本版 鐵山大活劇
◇特選新譜 上海第二週
上海야잘잇거라 原名(再會吧上海)
朝鮮이나은最初의映畵 中國映畵界에進出된最初作品
◇마기노프로덕슌大作映畵 中國名花 阮玲玉主演
現代映畵 歡樂의影 秋田伸一、砂田駒子主演
◇警告‖國境飛行隊、男지은女子 警官東十七號、古城의鬼、구름과날개
光武劇場 上往十里町

一月八日부터三大巨篇封切週間
아메리카ㅣ社超特作全發聲連續大活劇 巨匠호래이스코스태파니氏大作品
超人對火星人 八、九、十篇上映
第八篇…死의試驗 第九篇…火龍과의激戰 第十篇…謎의怪漢
妖艶지ㄴ로자ㅣ스愛動演
跳躍王바스타ㅡ크라부氏主演
血河猛鬪
코럼비아社特作全發聲猛鬪活劇 스테사고든배넷드氏監督
活劇王진매이나ㅣ드氏主演 배스마리오愛動演
POL超特作全發聲！ 鬼才村上知義第一回監督作
戀の愛責任
細川ちか子 提眞佐子 大川平八郞 北澤彪 主演
七日ヨリ九日マデ三日間公開 階下席十錢均一
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ジャンキープラ主演
戀のナポリ
琴糸路 藤丙林太郞主演 松風村雨
海江田讓二主演 神州曼陀羅峽 后篇
貫鐵町 電光三九五 優美舘

永樂町 電話三五三番 中央館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三〇
第二回 三、三〇
第三回 六、五〇

●前週超滿員謝禮● 新年特別週間
一月五日낫부터 劇團靑春座新年公演第二週
悲劇 除夜 二幕 李雲芳作
人生의除夜！ 淸新의抱負를描寫한除夜定評잇는作者가絶對自信을가지고내여준作品입니다期待의 얼인업는傑作을꼭보서야합니다
殷鵠山編 悲劇 눈물리는그늘밧뒤골목 三幕 林仙圭編
눈물리는그늘밧뒤골목에서人生의哀悲劇이演出된다人生의뒤골목！
●特別豫告●
悲劇 새아씨經濟學 一幕 李雲芳作
敍情篇진달내쏫필때 二幕三場 林仙圭作
悲劇잇시못할사랑 二幕

一月七日부터三日間每日晝夜二回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
◇超特作三大特作品週間◇
낫一時밤七時始映
◇유니버살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怪奇劇 大おほがうす鴉 全七卷
監督……루이호이리드ㄹ란드氏 主演……보리스카ㄹ로프 버ㄹ라루고시氏
◇MGM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깽크劇 깽크의新婦 全九卷
監督……작크콩웨이氏 主演……계스타ㅣ로리스氏 카루롤바ㅣ드氏
大都映畵社特作品 現代劇 串指おてん 全七卷
監督……吉村操氏 主演……佐久間妙子氏 伴淳三郎氏
次週ㅣ무엇나ㅣ엔노켄近日
東洋劇場
桃花劇場 黃金町花町 電話三三二番

少年朝鮮日報發刊과各界人士의讚辭

本紙의附錄으로 十日부터發刊

少年少女의科外敎材로 童心善導에指南針

新年本社三大計畫의其一

본사에서는 신년사대계획중의 하나로 소년조선일보(少年朝鮮日報)=타블로이드판사페지로 간행하야 일요마다 부록으로 만천하독자에게 배부한다함은 이미 사고로 발표한바어니와 드디여 이소년조선일보는 오는십일부터 그첫장이밝간되야 우리소년소녀들의 귀여운바수와갈채를 밧게되엿다

미래는 청년의것인동시에 어린이의것이다 어린이들이야말로 우리사회장래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그들의교육문제는 여간우리가 관심하여서는 안될문제이다 이예본사는 창립이래 보도사업과 아울러 어린이를 중심으로한 문화사업을 지지흥원하여왓스며 도지면으로는 그날그날『어린이란』을 두고 일요마다 소년소녀를 위한 특종기사를 게재하야 어린이들교육에 힘을써가지안하여왓스나 도저히 이것만으로는 우리어린이들의 요구하는것을 충분히만족식히지못함을 늣기고 본사는 모든희생을 무릅쓰고 아직까지 우리신문계에서 계획하여보지못한 소년신문을 간행하게되엿스므로 이소년조선일보야말로 반다시 우리가정의 큰환영을바더서 꿈거곰게 자라나는 천사가튼 어린이들의 귀여운동심을 께끗히 개척하여줄것으로 본사는 자신하는바이다

이계획이 한번 발표되자 각게인사에게 대중동을 일으키여 찬사와 희망과 격려의 말슴이 물결밀리듯이 몰려드는 현상인데 약간을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潑剌한意氣를도으라!

李鍾麟氏談

우리가 가장희망을 부치는것은 압날의려사를 가저오는 소년들이다 크다놉다하는 로쇠경으로가는 사람보다 어리다적다하는소망에 찬소년들은 압날에 크게될것이고 놉게될수잇다 소년들이 학교에서 규측적지드를 밧고잇는반면에 가장즐기는것은 신문이란든가 잡지라고 생각된다

조선일보가 매일요일마다 소년조선일보를 발행하야 그들을 지도하려는것은 사회적으로 큰 의의가잇스며 이로서 소년들의 희망이 달성될것이다 한가지부탁하는것은 사상으로나 풍격으로나 소년에게 부적당한것을 고취하지말라 추상적말이나 과거의 우리들이 배운 지는것이 이기는것이다놉다는 관념을 이번기회에 일소하고 지는것은 병신이다 이기는것이 참으로 이기는것이오 사는것이다놉다는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발랄한의기를 돕게하라 (사진은 리종린씨)

內容을쉬웁게 그림을만히

그래서재미잇게읽도록…

兪珏卿女史談

우리가가정에서 어린이를 양육할때에 항상유감으로 생각되는바는 어린이에게보혀주고 읽켜주고할 우리말글된 그림책하나 동화책하나가 업는것입니다 외국어린이들은 수만흔 여러가지그림책 만화책 또는동요책을 가질수잇서 그런책을가지고 유쾌히놀고 질겨워하는것을 볼때마다 어서밥비우리조선에도 이런어린이를위한 출판물이 나오기를축수하고 고대하여왓습니다 다른일반가정에서도 그러하겟지만은 우리집에서는 어린애가동요나또는 무슨재미잇는 이야기를하라고 졸를때에는 항상 귀보의『우리차지』란을 읽어듯겨왓습니다 이러든차에 귀사에서이번에일주일에 한번식 소년조선일보를 발행한다하니 여간반갑고 고마운일이아닙니다 희망하고저하는바는 소년조선일보이니 어린이에게편한 자미스러운 이야기 동요동화를만히게재하야 내용을쉬웁게하는동시에 만화를만히게재하야 언문을몰르는 어린이라도 질겨그신문을 보도록하여 또일반가정에서 언문만아는 어머니면모다 어린이들에게 읽거듯겨줄수잇서서 어린이로 하여곰 부지중에언문을 해득하게하고 독서열을자어내게하여 주엇스면하는것입니다 운운 (사진은 유각경녀사)

『어린이들에게 큰도음되기를』

安大善氏談

귀사에서 소년조선일보를 발간하신다구요 그것, 참반가운소식입니다 따라 조선의 어린동모―들을 위하야 큰리익을끼치는 긔관이 되기를 바람니다 그리고 이긔회에 그들 어린동모―에게 한가지부탁을 하고십습니다 당신들은 위선 공부하는것이 제일이라는것을 잇지안토록 하여주기를 바람니다 우리가 공부하는곳은 비단학교뿐이아니라 가정에서 배우는것이 더만코 또이것이 더중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슴을 잘들으시고 가정에 도라와서는 부모형제의 말슴을 순종하고 배웅의길을 닥거야합니다 그러나 배웅에잇서서 한가지 주의하여야할것은 배우는것은 자긔를 위함이아니라 남을 위하여배운다는 마음을것지마시기를 바람니다 그리함으로서 장래에 사회를 위하야가정을 위하야 자긔의책임과 사업을 다할수가잇습니다 이런의미에서 금번새로 발행되는 소년조선일보는 당신네들의 배웅에길에잇서서 만흥유익한 배움이될것이라고미드며 따라서 소년조선일보의 장래를 축복합니다

『읽는新聞보다 보는新聞을…』

崔奎東氏談

소년조선일보발행은 우리어린이들의 공유물을위하야 가장적절한 사업입니다 조선에는 아직까지 그림책 만화책등 순전히 어린이들을위한 출판물이업서서 항상아동교육상 곤난을늣겨오든바 이번에 귀사에서 소년조선일보를 발행한다하니 그것은 반다시 일반가정의 큰환영을밧는동시에 아동교육상 공헌이클것으로 밋습니다 부탁하고저하는것은 아주내용을 쉬웁게하고 그림 만화 사진등을 만히너허서 읽는신문보다도 보는신문될만들어서 어린이들로하여곰 집겨서 읽도록하여 주엇스면합니다 그런의미에서 너머문장도 긴것을 쓰지말고 짧은말을쓰되 적당한말은피하고 될수잇는대로 바른말 조흔말을쓰며 활자도 큰활자를쓰며 간격을바로하고 글자도 하나도빠진것 삐두러진것이 업시 하여주엇스면 조켓습니다 서너더덧살부터 보통학교상급생에 이르기까지 읽을수 잇도록 너덧계단에 나누어 가장쉬운것으로부터 차차어려웁게하야 어린이면모다 취미를가지고 나올때를 고대하도록하여 주기를바랍니다 운운 (사진은 최규동씨)

兒童의心理를 잘알어채려서

그材料를取扱하라!

李克魯氏談

어린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그아들들의 영양을 위하야 우유나 기타영양분잇는 음식을먹이는것과 마찬가지로 아동들의 지혜를 발달시키기 위하야는그들에게 조흔 읽을거리를 제공하는것이 역시 그건강재의 하나이라고 할수잇다『소년조선일보』는물론 소년을 상대하야 맨드려내는 신문이므로 아동들의 심리를 잘알어서 그재료를 취급하여야 더욱이 유익한 신문이 될줄로생각한다 (사진은 리극로씨)

去月의氣象槪況

高溫 多雨 風靜

작년십이월은 대륙에잇든 고기압의 세력이 의외로 약(弱)하얏고 또이동(移動)도 편(偏)기때문에 천후변전에잇서 대단한『[illegible]』를 보혀주엇다 평균기온은 울산(蔚山)을 제한외에는 일도내외가 노팟고특히경성(京城)신의주(新義州)에서는이도넘어나 과도(過度)를 보혓스며 최고기온도제주(濟州)울산(蔚山)경성(京城)가튼곳에서는 기왕의 긔록을 깨트렷다 비가오든량은 한달동안에 웅긔(雄基)의 칠미리가 가장적엇고 다른곳은 삼십미리 내지칠십오미리로 그중 원산(元山) 강릉(江陵)은 일백십미리에달하얏스며 평년과의비교는 제주 웅긔 울산을제하고 모다십오미리 내지팔십미리가만헛다

×

그리고 평균 풍속(風速)으로부산(釜山)인천(仁川)지방은 조금강하얏스나 다른곳은 일반으로약하얏고 폭풍일보(暴風日報)도대개 평년보다 감소하얏다。

다음에 특긔할것은 십륙일아츰 황해(黃海)하류에 물결을선(不連續線)을 동반한 저기압이나타나고 이것이 동쪽으로 나아가 이튼날정오때에 황해도에상륙한 때문에각지기온은 이상히 노파저서국경의 일부에는 다른곳은 칠아닌비가와서 경곽, 평북, 강원도가튼곳은 처처에 삼십미리 내지구십미리의 호우가잇섯다。

요컨대 이달기후는 바람이약하얏고 기온이 노팟고 비가만히와서 마치 만추(晩秋)의 감이 잇섯다。

開城年賀郵便 十八萬通引受

【開城】개성우편국에서본 작년세말경긔는 연하우편 소포우편 연하전보로해서 일반국원은 안배막게로 분망의 절정에달하엿든바 작년십이월이십일부터 동년말일까지 접수된 연하우편수는 실로 십팔만통을 돌파햇다하니 개성부민인구에비하면 배인이상으로 배당되는수자라볼수잇다 얼어만히 경험것가려보고잇다

兇器를發見押收 容疑者數名檢擧

事件은急轉直下로解決?

纛島老婆慘殺事件續報

속보=부외서뚝도리 흥전(興田)로파살해사건에관하야 현장을답검한결과 여러가지점으로 추측하야 강도살인사건으로 인정하고범인수색에 전력중인 소관동대문경찰서에서는 뚝섬주재소에수사본부를두고 서장 사법주임동의지휘미테 전서원이 총동원하야 물샐틈업는 수사진을 펴고 전과자등을 일제히 검거하고증거 물품을 수사한결과 팔일 오후에 일으러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발견해고 유력한용의자로 전과자 삼사인을 데려다가 엄중한 취조를 진행중인데 무슨유력한단서를 어덧는지 오후열시쯤하야 용의자한명을본서에인치하는동시에 본서에대기하고잇든서원일대를 전부 해산시키고 이십여명만 수사본부에 남어잇서 용의자취조와 수색을계속하고잇는 점으로보아 아마용의자중에진범인이잇는것이아닌가 추측된다

問題의二百圓!

內情아는者의犯行인듯

수사본부에서는 로파의고용인연자근문을 취조한결과 피해자흥전도모에는 수일전에 어듸서든 이백원을 꾸어다가 연자근문의 『사경』(私耕)칠십원을 가픈일이판명되엿는데 이돈이백원을 꾸어온내용을 아는사람이 그가돈을 가지고잇는줄밋고 도둑빼기위하야 들어갓다가 발로되지안하매 그목숨이고 남어잇는 돈얼마를 훔쳐간것이 아닌가하야 그집사정을 잘아는사람을 엄탐중이라 하는데 이사건은 만약곳해결되지못하면 신고가 느진관계로범인이 멀리달어나서 상당히 시

高麗靑磁器 盜掘黨逮捕

開城署에押來嚴調

【開城】부외청교면배야리(府外靑郊面排也里) 사번칠십구번지리 리춘길(李春吉)은 동면동리 차흥봉(車興鳳)과 공모한후 지난십이월 이십삼일 오후팔시경 부외령남면룡흥리(嶺南面龍興里)일등(全花洞)일백사십삼번지의 산소에서 고려청자긔 밥그릇 술잔두개와 백자기 차관한개와 식긔네개를 몰래발굴하야 시내고물상에게팔어 큰표도를벗을꿈꾸다가 팔기전 동면주재경찰에 발각체포되여 전긔 고려자긔일절을 증거품으로 압수하야가다가 이래 개성본서에서 엄중이취조중이라한다

無智한癩患者 十歲兒를殺害

【康津】지난십이월이십륙일경전남강진군강진면림천리(康津郡康津面林川里)에서 리병환자(癩病患者)가 인육(人肉)으로써 병을 고치고저 열살된어린아이를 산으로둘고가서살해하야육식(肉食)한후 [illegible] 사건이발생하엿다는데 한바에하면 본적을 령암군삼호면(靈岩郡三湖面)에두고 병을고치고저 강진약수장(康津藥水場)을차저와서 한달동안고용을하면서 약수를먹어보앗스나 병은낫지아니함으로 김창식(金昌植)(○)을 산의고분에 가서살해(殺害)하야 육식(肉食)한사실인데 경찰서에서는 삼십일일 장흥(長興)검사입회로 사체해부(死體解剖)를 하고범인수사에필사적활동을하고잇다한다

朝鮮의鳥瞰圖와 產業等을陳列…

총독부상공장려관(總督府商工獎勵館)과 만주두철도국의 공동계획으로 하관(下關)에 잇는 선만안내소(鮮滿案內所)와 이층을 리용하야 조선 만주의 교통및 물자의선전을 위하야 이에관한 진열을하야 조선 만주관광의 조흔참고로 삼고저 계획중이든바 요지음에 결정되어 근간에 실현하기로되엿다한다 조선철도국에서는 조선의조감도(鳥瞰圖)와 사진등을 진열하야 관광지를 선전하기로 되엿다한다

그때의 靑年學徒時代 ⑦

民衆속에隊伍지어 懸河의熱辯을吐露

自負心이强烈햇든其當時學生들의氣質

抱腹絶倒·洋人에對한先入見

申興雨氏

신흥우(申興雨)씨가 청년학도시대에 가즌일화는 널리알려진바로 일반의 욕구는 모름직이 그의 야사적(野史的)인 방면일것이다

다음에 긔록되는 이야기조차 미상개의 새로운이야기가못된다면 이는 오로지 긔자의 록민이라는것을 책하여주기바란다

○

갑오년(甲午年)의 조선은 내우외환, 참으로 다단한 시국이엿섯다 배재(培材)학당에 입학할당으로 선친께서 나를나리시고 초대(初代)『아펜셀라』교장을 만나려갈때 세상에는 양인(洋人)에대한 여러가지 풍설이 돌고잇섯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괴물내지괴골(奇物)처럼 하여오든 즉양인은 사람의고기를먹는데 여섯사람을식혀서 아해들을 유인하여 갓다는등 엇뎐물장사가 양인의집에 물을 지고가서 부억에 드려다보앗드니 시루속에 눈이빠얏케된 영아의시체가 잇섯다는 이야기도 들려왓다이가튼 무서운 선입관을 가지고 처음『아펜셀라』선생을 대하엿슬적에는 아닌게 아니라 공포심도 업지 안헛나 그때에 인상을 솔직히 재생식힌다면 다음과갓다 소털가튼머리 우묵한 눈섭 험상스러운코 그러나 그의인자한 음성을 듯는순간 모―든 의혹은 다―사라지고 존경하는 마음만이 남어잇섯스며 이날까지도 선생을 추모하는정은 조금도 변함이업다

○

그해겨울 어떤날 하학시간이 되여 집으로 도라가랴고 할쯤에 동모들이 서소문(西小門)밧게 동학군(東學軍)의 목을걸엇다니(梟首)구경을 가자고야단들이다 멀리서보니 과연네개의목이 한곳에 두개식 두군데걸려잇다 그리고 갓가히가서 자세히보아두지안흐면 꿈에보인다고하야 두군거리는 가삼을억제하며 한거름한거름다아서든 생각모도가 지금은꿈가타

(학생시대의 신흥우씨와 당시 우내 집회광경)

○

지금『데모』라는말의 뜻을 몰으면 새교육을 밧지못한 사람들이 잘 알지못하드시 그때의 새로운말로 연설(演說)이란 말을처음듯고 그것이무어냐고 물엇든일도잇스며 약이백명의 학생으로된 본회원과 기타사백여명의 정치의식을가진 찬조회원으로 조직된 협성회(協成會)에서 일주일에 한번식 시사문제에관한 토론회등이열려 연설이 한창성행하기시작하엿다

○

그때 나라에서 단발령이 내렷섯는데 선미급한사람은 홀딱깍가버렷섯스나 대체로 머리가운데만깍고 가장사리를 남겨서 이상한형태를 하고 단기엿스며 정변(政變)이생겨 또다시 머리를 기르게되자 전부깍것든사람은 망건테에다가 머리를 한올한올 붓들어 매여가지고 이상야릇한광경을 보인적도잇다

○

신진사상을가진 사람은 어느시대를 물론하고 곤의(困役)을 하는것이다 당시학생사회는 절대 평등주의하에 패긔(霸氣)와 야심이 만만한 청년으로 차잇섯다 각자가 국가를 경륜하겟다는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 모든·외로움과 고생을 조금도 돌보지안헛나 정부의 방침에배치된다든가 문중(門中)의비해쯤은 문제가아니엇다 자긔의 밋는바 원대한리상을 향하야 돌진하엿다, 쉴새업시 인간적으로 전진하고 향상하려는 긔풍이충일하여잇섯나, 개중에 흑항락을 탐하는자가 잇다면 그는 인간지말종으로 지칭되엿다 어느칭지어 가두에나가서 대중을 모아노코 도도한 현하의 열변을 트하엿다 감상(感傷)과 락망(落望)은 가장 경멸을바덧스며 강한 자부심(自負心)으로『미래는 우리것이다』는소망을 지금학생들보다좀더 만히 가젓든것갓다 당시의 학생들이 정치에만 열중하고 현대학생들처럼 예술(藝術)이란든가 자연과학등을 연구하는사람이 드물엇다는것은 유감이나 그시대의 환경을고려한다면 불가피한일일것이다

副業에 軍手の製造

큰利益을바라지안코 確實한收入을어더 一家生活의安定을도 들려하는분에게 軍手의製造業을奬勵한다

特長

第壹 僅少한資本으로着手할수잇다
第貳 製造方法은極히簡單하야女子나아해나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하다
第參 販路가大端히넓다
第四 完成된製造品은製造所에서引受한다
第五 如何한山間僻地에서라도製造함에不便이업다

昨今軍手의大需要期에드러製品大不足인때에一般이開始함에는絶好한機會이다
目下有利한條件으로直屬製造家 募集中
지금곳申込하는분에게는卽時製造方法을無料로가르치고絲는供給을한다
○左記近處의營業所로照會次第
軍手製造의栞 을無料로贈送함

全國購買組合聯合會御用達
株式會社和信連鎖店指定商
合名會社 朝日軍手製造所
大阪市旭區野江町一丁目京街道
東京市本鄕區元町貳丁目三ノ一
京城府黃金町五丁目 郵便所前

貴여운애기들에!
第一조화하고、健康第一인
선라잇콘비
サンライトコンビ
各地百貨店雜貨店에잇슴
類似品잇스니此商標에注意하시오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平和堂 京城堅志町 一劑十円

旗 カメヤ旗店
京城黃金町五丁目
カタログ進呈
國旗 萬國旗 校旗 優勝旗 會旗 寄贈旗 幟幕

陰萎·勃起不良·不感症
中井醫學博士創製·五大博士推奬
最新發明局○塗布藥
セーブレビン (세부레빈)

適應症 陰萎·生殖器短小 不感症·分泌減少症 感增進·勃起不良
發賣元 天醫堂

理化學用白金器具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各國產羅紗販賣
(高級洋服地·朝鮮두루마기地)
洋服店各位에는見本請求次第送呈함
釜山府大倉町一丁目三
エスワイ號羅紗店
電話長四五二番·振替釜山四五二

古自働車部分品 買入
自働車解體 古部品
住所 光州府不動町三八
韓吉祥商店

訃告

李鍾燮氏夫人慶州李氏病氣療養中藥石無効不幸於今月四日陰十一月二十二日申時捐世玆以告訃

發靷日時 一月八日午前九時半
永訣式場 府內水上派出所前廣場
葬地 安岳郡安谷面 [illegible]

昭和十二年一月四日

護喪 黃致秀
嗣子 李在南 李在恒
親族總代 小笠 捷次 魯起元
友人總代 桑山部太郎 尹基元 齋井 [illegible] 李 [illegible]

謹賀新年

海州

海州邑南旭町 ……昌商店 電話四〇五二番

海州商工協會

海州自動車部 金相赫

海州郡高山面 黃海道會議員 李斗永

黃海道海州 救世療養院 電話五一五番 振替京城一七〇六九番

黃海道海州邑 合資會社 海西藥酒釀造場 電話四三八番

海州邑南本町 朝鮮料理元祖 大正館 電話一四〇 一六九番

朝鮮金融組合聯合會黃海道支部 黃海道金融組合

黃海道廳 食堂員一同

黃海道警察部長 坂上滿壽雄

黃海道海州邑西榮町 米穀搗精業 合成精米所 電話一六八番 電略コ(又)ハ〇コ

朝鮮海州本通り 洋品百貨 綢緞布木 和信連鎖店 電話四四八 振替京城二二九六三

黃海道海州邑南本町新市場通 海陸運送、貨物自動車營業 馬車運搬營業、鐵道貨物取扱、帆船組合代理店承認 Ⓚ西鮮貨物自動車運輸組 主任 金奎圭 電話二四九番

海州邑南本町七四 合資會社 海州貨物自動車部 代表者 李永仲 電話一一四番

海州邑南旭町 合資會社 海東藥酒釀造場 電話四一六番

朝鮮黃海道海州邑 海陸産物委託貿易 國際貿易社 高俊弼 電話四二七番

海州邑本町通 鹽 海東商會 電話二三番

朝鮮黃海道海州 黃海自動車商會 朴奎達 電話一五八番

黃海道海州邑北旭町 普成商會 精米部 洪性轍

海州邑本町 海州藥局 電話五〇二番

海州邑南本町 株式會社 海州券番 電話三〇九

海州邑南旭町 金基秀

海州南旭町 農水産物製鹽 咸俊永商店 電話二二三番

協盛商會 海州驛前 電話五三九

海州醫師會

海州材木商組合

朝鮮セメント會社

西鮮合同電氣會社 海州支店

海州郡廳

朝鐵自動車部

海東銀行海州支店

殖産銀行海州支店 支店長 好見清一

尾崎由馬

海州刑務所

海州公立學校 職員會

海州金融組合

海州邑事務所

黃海道農會

黃海道立海州醫院

黃海道海州邑龍石町 百世清風醸造元 海州酒造株式會社 電話四五六番

懿昌普通學校

海州無盡株式會社

黃海道海州邑南本町 合資會社 普恩堂 代表社員 韓長鮮 電話二二三六番 振替京城二二……

海州邑南本町 銀座洋服店 主 …壽…海

海州 至誠齒科醫院 金館衡

海州邑東門通 和洋酒 諸食料問屋 義昌商會 朴昌潤

黃海道海州邑南本町 十字堂印刷部 郵 俊永 電話五三七番 振替京城二〇五八二番

朝鮮黃海道海州郡南本町 活版石版印刷及 和洋紙物文房具 一式諸官衙御用達 啓明社 電話二六九番 振替京城一〇二七六番

海州邑南本町 物貿易商 高貞鎭 電話四六三番

海州驛前 興産社支店

黃海自動車學院 高榮煥 海州邑東榮町 電話五二三番

海州邑南旭町 碧城精米所 電話一五三番

黃海道海州南門通 海州印刷所 尹吉李 電話三一三番

黃海道海州南門通 藥種、唐材 製劑材料 内外賣藥 救命堂藥房 主 柳 電話四九一番 振替京城八〇二一番

海州邑南本町 朝鮮旅館 主 韓昌成 電話三六八番

海州邑北旭町 鑛物物産 洪性蓮商會

海州郡東雲面 兄弟商會 安弘模

海州郡泳東面 鄭元奎

海州邑龍石町 吳景煥

海州邑南旭町郵便所 所長 金容熙

劉琮鉉

金相殷

海州南旭町 金景壽

海州邑西榮町五 韓長煥

海州邑本町通 朝日洋服店

黃海道海州邑南本町 カフェ サロンスター 電話三五〇番

海州稅務署

海州辯護士會

鳳頭里

全羅北道南原郡廳 郡守 裵錫麟 外職員一同

朴禧沃

細野元助

喪中欠禮 巳梅 李東器

南原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南原邑長 李正根 外職員一同
雲峰面長 朴重模 外職員一同
寶節面長 安秉鎔 外職員一同
二白面長 安致永 外職員一同
山東面長 金熙一 外職員一同
巳梅面長 邢仁燮 外職員一同
朱川面長 許炘 職員外一同
松洞面長 李秉洪 外職員一同
金池面長 金學璉 外職員一同
帶江面長 裵現基 外職員一同
大山面長 李容默 外職員一同
阿英面長 金昌善 外職員一同
德果面長 金炳俊 外職員一同
山內面長 金昌珣 外職員一同
東面面長 吳炳初 外職員一同
王峙面長 林在陽 外職員一同

南原唯一 明治旅館 主 黃智亨

南原 魯政順
南原 朴政植
南原 柳時喆
南原 徐慶吉
南原 井上濩
雲峯 宋南成
雲峰 朴中錫
引月 朴仁蕉
引月 朴淙宣
巳梅 柳時東
巳梅 柳圭鉉
寶節 安晋燮
寶節 劉載敏
水旨 朴海彩

喪中欠禮 雲峰 崔奇煥

南原警察署長 入江幹夫 外職員一同

南原稅務署 署長 坂井種起 外職員一同

殖産銀行南原支店 支店長 望月僧仁郎

南原 辻護一郎

南原天主教會

南原小花學院

南原郡廳前 大盛印刷所

南原鐵道醫院 院長 河龍鐵

全北特産物 朝鮮紙木器 南原郡山內 殖産組合

南原邑 大昌精米所 電話一〇六番

南原邑本町通 洋品、百貨、學生服配給所 大福商店 電話七五番

智異山新炭 木炭、米穀 百貨總販賣 雲峯同人社 主 尹修洪

朝鮮南原本町 長田洋品店

南原寫眞館 電話一四番

南原產業組合

南原金融組合 職員一同

巳梅金融組合巳梅支所 副理事 鄭完喆

南原邑雙橋里 千代田生命保險相互會社南原所 主任 趙東鎔

群山米穀檢査所南原出張所 阿部小入

南原郵便局

南原砂防事務所 職員一同

山東面歸政寺 住持 裵晶淳

南原◎營業所 近藤善七

南原精米所 電話一〇八番

南原邑雙門通 南原印刷所 電話五五番

全北共和自働車部

南原營業所

山內實相寺 住持 南性法

巳梅砂防事務所 職員一同

全北南原郡南原邑本町 金銀細工 印章彫刻 元興堂印舖 主 李判奉

南原裁判所前 張彭淳 電話七番

南原邑本町 芝山菓子店

南原金池驛前 金池精米所

南原邑本町通 洋品 百貨 福榮商店

南原驛前 中央商事運輸組 製造元 南原郡巳梅面梧新里 南原釀造場 主 朱亮勳

南原裁判所 司法書士 韓相鉉 司法書士 李顯哲 司法書士 宋承烈 司法書士 金湊洙(雲峰)

新興

新興相和會

新興林產副業組合

咸南新興郡 朝鮮鑛業開發株式會社 明太洞鑛業所 金命鍊 外職員一同

元平面新成里 新興鑛業所專屬 桑原組

新興郡邑內 金永翊

◎朝鮮運送新興取引店 柳昇赫

元平面長興里 康弼模

元平面長興里 朴長英

元平面事務所 職員一同

加平面事務所 職員一同

下元川面事務所 職員一同

永高面事務所 職員一同

下元川公立普通學校 安東繁 朱舜夫 李近信 金珪鉉熙

加平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永泉釀造場 朴春三

新興郡下元川面 明太洞鑛業所 供給所 韓鎭石

私立東成學校

喪中欠禮

新興郡邑內 玄昇鎭

永高公立普通學校

元平面長興里 金潽鉉

上元川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千佛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元平面興德里 鄭鑫欽

新興森林保護區 職員一同

上元川面元上里 朴李夔

倭館

慶北倭館 官公吏一同

慶北倭館 倭館酒造組合 組合長 入山昇 理事 柳基德 外職員一同

慶北倭館 道議員 入山昇

漆谷郡枝川面新洞 京城古市町東邦科學興業株式會社 社長 金秉業

京釜線若木驛前 李海哲

慶北倭館 喪中欠禮 倭館醫院 主 金顯文

京釜線若木驛前 若木病院 主 權寧達

慶北倭館 合名會社 南一商店 米穀鹽肥料部 慶貝雜貨部 電話一六番

慶北倭館 精米製粉 肥料穀物商 尹哲炳 電話二三番

慶北倭館 金融倉庫株式會社

京釜線若木驛前 若泉酒造場 若山精米所 主 申相憲

漆谷郡仁同邑內 仁同釀造場 主 張炳琦

慶北倭館 倭館穀物商組合

慶尚北道漆谷郡倭館面倭館洞 米穀肥料商 倭館穀物株式會社 電話六番 振替谷山八一九

京釜線新洞驛前 姜信釆

漆谷郡北三面吳木洞 倭館金融組合長 張憲相

枝川面長 李承弼 外職員一同

倭館驛前 甲種料理 大邱館 主 金花仙

慶北倭館 甲種料理 洛東館

慶北倭館 金城山金鑛 主 金城鎬

漆谷郡枝川面新洞 成台慶

漆谷郡倭館面梅院洞 李萬煥

若木面長 李吉榮 外職員一同

慶尚合同銀行 倭館支店

倭館穀物貿易商會 李綱鎭

京釜線倭館驛前 穀物精米 肥料及鹽 朴潤植

慶北倭館 米穀商 三共商會

慶北倭館 司法書士 趙東淑

漆谷郡石積面城谷洞 酒造業 張敏植

慶北若木 司法書士 代書業 金聲漢

慶北倭館 日成自轉車店 主 朴海連

漆谷郡石積面城谷洞 張敦植

慶北倭館 織物布木 其他雜貨 權道鉉商店

慶北倭館 有名雜貨 及雜貨商 徐泳鎭商店

若木面協議員 洪……

慶北倭館 布木雜貨 尹健炳商店

寶明面長外 職員一同

漆谷面長外 職員一同

北三面長外 職員一同

架山面長外 職員一同

漆谷郡石積面 酒造業 漆溪酒造場

漆谷郡架山面下洞 酒造業 張世明

漆谷郡若木面 酒造業 張曙相

京釜線新洞驛前 酒造業 金秉駿

慶北倭館 日進雜貨店 主 李綱鎬

慶北倭館 和信連鎖店

布木穀物商 李仁燮

京釜線若木驛前 絹綢布木其他雜貨 婦人商會

京釜線若木驛前 布木及ゴム靴商 李鍾浩

京釜線若木驛前 絹綢布木實業雜貨商 鄭壽植

慶北倭館 東西醫院 主 蔣鳳遠

慶北倭館 星崗藥局 主 金錫興

京釜線若木驛前 濟昌藥局 崔斗甲

慶北倭館 米穀商 蔡允植

京釜線倭館驛前 米穀精米業 孫善琰

倭館驛前 精米業 張澤龍

慶北倭館 精米業 黃聖道

京釜線新洞驛前 司法書士 蘇鎭岳

京釜線新洞驛前 精米業 尹八守

京釜線新洞驛前德山洞 朴元特

漆谷郡倭館面梅院洞 李鳳潤

漆谷郡倭館面梅院洞 李承海

漆谷郡枝川面錦湖洞 尹昌遠

京釜線若木驛前 金萬馨

慶北倭館 大邱理髮館

京釜線若木驛前 理髮組合副組合長 鄭大洛

慶北倭館 製材及木工業 朴海壽

慶北倭館 喪中欠禮 李相祐

慶北倭館 海商印刷所

慶北倭館 土木業 朴在同

京釜線倭館驛前 大邱洋靴店 主 梁

慶北漆谷郡若木面 指定商園業 吳昌

京釜線若木驛前 若木金融組合 理事 金永源

慶北倭館 ……

銀幕의 世界처름 變化가자즌곳은 업슬것이다 『진·파신』이 바꾸여 가듯이한사람의花形이 人氣를업게되는가하면 몃칠뒤에는 어데론인지사라저버리고 消息조차 아득하여진다 팬이란 또한薄情한것이다 오날날 한사람의 스타—가마음에들면 크게숲에 떠러단이며하로에도 멧잇의 片紙를 부처주는것이다 그러나 한번스크린을떠나게되면그때에가 조화하던아모개는 지금어데서 무엇을하고잇느냐?하고 穿鑿한일 보나주는이가업다

朝鮮映畫도 十年의歷史를가지고잇스니 그가운데엔만흔 스타—들이 明滅하엿다 와서는가고 이러케지나간사람들의 발자취는 지금 撮影所나 撮影所의 周圍에잇슨 날가진떨림조각속에 남아잇는하나 사람은 어데로갓는지 알길이바이업다◇

한시절 羅雲奎가 아리랑을만들고 『잘잇거라』 『들쥐』를 만들때 朝鮮映畫의美男으로 그때 긴치마 긴댕기들인 서울의女學生間에이야기거리가되고 妓生들의 가슴을 뭇척도 조리여주든 朱三孫君은 그後에 엇더케 되엿슬가 헤가바구어짐을따라 그사람의 消息과記憶는 차듬차듬우리의 머리에서 사라지고만잇다

그때 가리봉生하던 羅雲奎조차 그의消息을 도모지모르겟다니 다른사람이야엇더케 알길이잇스랴? 어스듸시 떠오는바람결의 消息에는 朱三孫이 지금어느시골장터에서 喜賊師노릇을 하고잇다하니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이것도한알길이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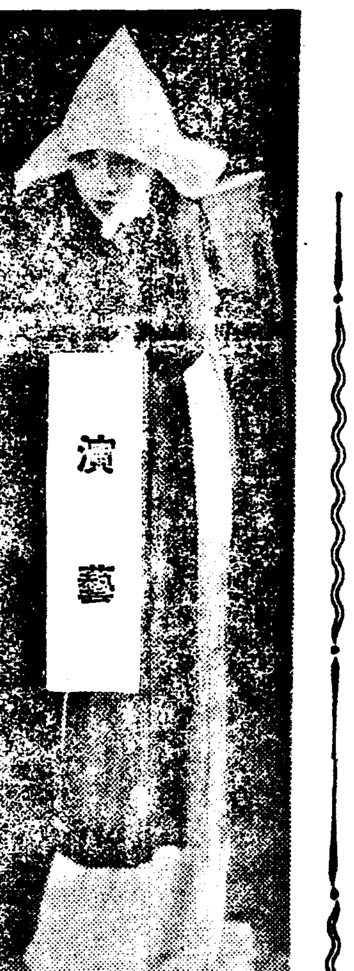
◇

朱三孫의그뒤로 그때에나와한시절『放浪』『먼동이틀때』等으로一일홈을 날리든 悲劇의女王一 俳만흔 우름을 우려서 팬의눈물을 자아내주고 한편으로 그當時에는 가장 보기드므다는 斷髮을하여서 이야기거리가되여주든 金靜淑!—그는 또한어데로 가버리엿스며무엇을 하고잇는지 十年前 그때도 나히가 만흔 축이엿스니 지금쯤은 벌서 中年의女子로서 어린아들 딸을기르고잇는지 그려치안코면 어데서 죽어버리엿는지 알수가업다 미둘단안에서 새여나오는 消息에는 木浦附近어느 조고만한漁村에서 살고잇다하니 날마다 바다에나가서 無心히떠잇는 갈매기에게 이처지지안흔 스크린의消息을무러보기나하는지?

◇

한시절 銀幕의女王으로 映畫팬의사랑을 一身에모으고 잇던 申一仙의그뒤!—全羅道[illegible]州靑年某某의夫人으로 꼿수레를 타고가떠나 거긔서 아이를 나허가지고도 이질수업는 銀幕을차저出家上京하얏다가 몃몃映畫에 出演해보아도 옛날과가튼 팬의支持는어들수업섯다 映畫에몸을던지엿던사람은 아마 映畫를떠날수업는모양이다하고 그저한가지의 慰勞로만 對해주엇스니그는여긔서또나시映畫를떠나고마럿다 날개傷한 적은비닭이가 옛집을 차저왓다가 도라서는 마음—때는지나가고 말엇다 한날을 찌르던그의人氣는 다시바라볼수업다고 그래다하야 옛愛人의집을다시 차즐수도 업서서지금은 林午康이라는 巡廻劇團에몸을두고잇다하니 十年동안의 사람일이 이처럼無常할수잇슬가

(寫眞(上)은朱三孫(中)은金靜淑(下)申一仙)



演藝

撮影所瞥見記

작난가튼온갓트릭

P K L

『五夢女』의 마즈막세트를 撮影中이니 求景하려 오지안케느냐는 羅雲奎氏의 電話를 밧고 京城撮影所로 다름질첫나 그래도 朝鮮서는 第一큰撮影所인 同時에 設備가 完全하다고하니 굉장하게 떠버려노앗스리하고 門을 드러섯스나 記者가 생각하던것과는 아조 딴판이다 첫재 撮影所라하면 俳優들의방이 따로잇고 세트도 그럴듯하게 해노아야할터인데 그다지 넓지못한 講堂가튼데 그냥 수수깽이와 짚단낫이 이리저리 흐터저잇고 한쪽구석에 조고만한 스토—브를 둘러싸고 구루마軍이나 시골장꾼 가튼사람몃치 모여 안젓기에 爲先 羅雲奎氏는 어데잇느냐고 물어보앗다

『아이고 잘와습니다 이리올러오시지요』하고 스토—브저편에서 뛰여나오는 친구가 바로 羅氏엿다。 적어도 映畫監督이 아닌가 옷이란 케케묵은 洋服때기에 얼골은 몬지와 끄름으로 까맛케된사람 이빨만 하얏케 드러내고 반기여주엇다

撮影은 하지안느냐고 무르니 한十分동안 세트를바구어꾸밀때까지 休息하기로되엿다 한다

여페서는 시골山直이아들개똥이처럼생긴친구가 고무長靴를신고 안젓다 그저심부름하는人夫려니 생각하고 잇스랴니 羅氏가 表情이야기를하고 무엇을가르키고잇다 알고보니 이친구가 요번場面에 나올農村靑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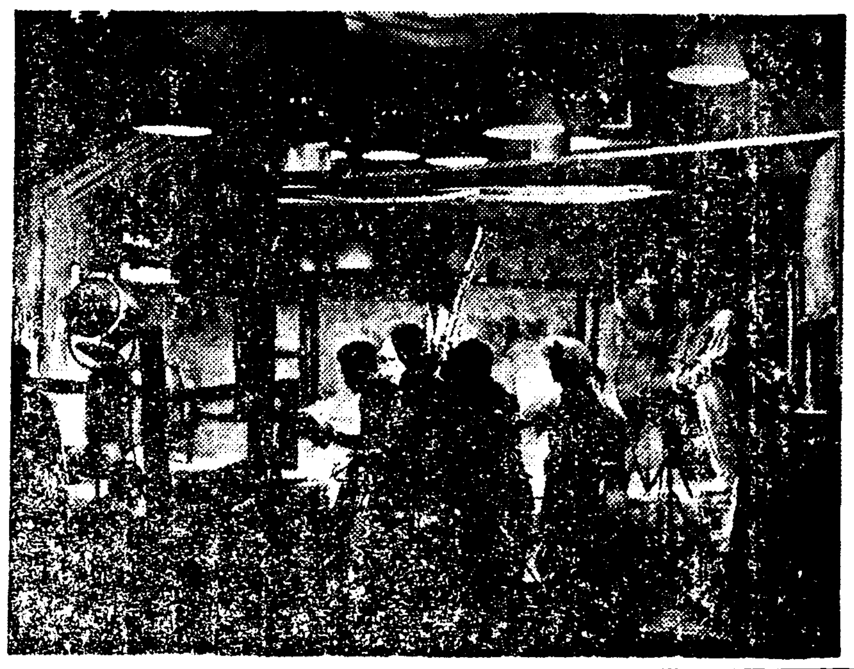
처녀하나가 다리를 드려서머리를 따아올리고 아이에게젓을 먹이고 잇다 놀라운일이다 처녀가 아이를나허서……그래이여려사람 잇는데 젓을먹인담! 돈갑이에게 홀린것가티 精神이어리둥절하얏다 常識으로 아라내수업는 衒學的인 場面—나는굼굼한나머지에『당신은 어떠한 女子요』하고 무러보앗다 女子는 아모말이 업섯다 應援을請하는듯이 羅氏에게 눈짓을하니 羅雲奎氏가 비로소人事를시켜주엇다。

이『五夢女』의 主役 盧載信孃이 바로 이處女다。무시무시한 돈갑이가튼 이처녀도 人事를하고 말을 것는동안에 親해보니 사람되봄이 여간 단정하며 사근사근하지안혓다 말로 孃이 시집간지 三年재나되며 벌서 딸아이가 두살먹엇는데 그의 남편되는분은 音樂을 研究中이며 열일곱살때 崔承喜舞踊研究所에서 나와가지고 映畫俳優가되엿다한다。

하얀 조히 봉지에서 무엇을내여서 먹고잇기에『하하 이女子도 눈깔사탕을 뭇척조와하는구나!』하며 그게 무엇이요하고 무러보니 콩과자 五錢어치를 삿는데이것은 다음 場面을 撮影할때 쓸 菓子봉지라고 說明해주엇다。 세트가 다되엇다는 기별이와다。 세트안에 드러가보니 그저 어수선한 집퉁치여프로 외양간이 잇고 닭의 회가 걸렷스며 좁다란 시골 골목으로 되여잇다 저편에는 길다란 수수깽이 울타리—라이트가 準備되고 몃번表情과動作練習이끗나자 撮影이 시작되엿다

錄音은 騷音이 너무대단해서 同時錄音을할수업고『애푸러』로 한다고하얏다 撮影機에 電氣스위치가꼽히자 이편에서 엄마전에 고무장화신고잇던 山直이아들가튼친구가 술병을여메끼고다름박질해서 수수깽이 울타리엽골목으로다라나자 저편외양간여페서 盧載信孃이 콩菓子봉지를 들고나오며 과자를 입에더러넛타가 이사람과마조치게된다。

딴은 그럴듯하게되엿스나 원이모양으로 바근사진도 스크린에서는 똑똑한시골목길가티보여질가하고 걱정스러웟다 시골처녀가 총각과길거리에서 마조치게되는場面—거기서 손목을잡고 남의눈을 避해서 으슥한곳으로 다라나는場面—모두한場面場面밧는데 여간힘들지안혓다 어디가틀렷스니 다시곳치자 어디가틀렷스니 다시백히자 이러케하야한三十分만에겨우한場面이끗낫다 벌서여덟시가 가까워오고밤에는 독섬으로 夜間로케이순을 간다고 하기에 그만총총히 人事를 맛치고 撮影所門을나왓다



(寫眞은『五夢女』撮影光景)

『나그네』로케션—

大邱聖峰映畫園의 第一回作品『나그네』(旅路)은 新興키네마의 푸로듀서 鈴木重吉氏의 指揮아래 李圭煥氏監督과 大久保辰一氏撮影으로 지금 洛東江下流에서 로케이순을하고잇다 出演은 文藝峰 王平 朴齊行等으로 來月初에는 全部 끗나리라하며 이作品은 東京의 新興키네마가 朝鮮에 進出하는 第一步로 만드러지는것이다。 大邱撮影所의 "純情海峽"의 로케이슌과함께 지금 洛東江畔은 크랭크소리로 新春譜를 울리고잇다 (寫眞은『나그네』의 로케이숀光景)

劇藝術研究會

第十四回 新春公演

今月二十一日부터 三日間府民館에서

昨年度新劇界에서 活潑한 活動을한 劇藝術研究會에서는今月二十一日부터 三日間市內 府民館에서아메리카 現代作家 헤이—드夫妻의作品『포—기』(四幕九場)을 張起悌氏가 飜譯하야 柳致眞氏의 演出과 姜聖範氏의 裝置로서 新春公演을 한다는바、이번上演脚本『포—기』는아메리카의 黑人集團生活을그린 作品인만큼 그멕조뢱한 生活內容과 作品의 斬新한 形式에 잇서서 우리의注目을 끄으는바가 만흐리라더라

라디오

八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어화靑春 二、唱劇 가、泛彼中流 나、華容道 崔桂蘭 (伴)杖鼓 池龍九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新年과새決心 (二) 宋今璇

◇同六時 (大) 幼兒童話 四つの椅子 オハナシ、ワラブ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偶然과運命 金晉燮

◇同七時三〇分 新年展望(六) 金活蘭

◇同八時 (平)西道歌謠 金碧桃 崔山月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黃鷄詞 二、白鷗詞 李月色 趙点紅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東)管絃樂 未完成交響曲短調……슈—베—트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아오꾸를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大)모—던이야기

◇同六時 (大)童話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大)浪花節

◇同八時三五(東)新內

◇同九時 (東)管絃樂

九日 (土曜)

◇午後〇時〇五分 (東) 合唱 뮤—포니코—러스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新年과새決心 (三) 孫貞順

◇同六時 피아노獨奏 尹琦善

◇同六時二五分 兒童時間

◇同六時三〇分 講演 科學과實際生活 金容瓘

◇同七時三〇分 新年展望(七) 國民協會理事長 金明濬

◇八時 執杖歌外 一、執杖歌 二、平壤歌 三、제비가 四、휘모리 尹一枝連 朴玉姬

◇同八時三〇分(大) 室內樂 (絃樂四重奏) 第一바이올린 알레산더—모기레푸스키 第二바이올린 에르네스트·토마시치 비올라 미하엘벡슬러 첼로 伊達三郞

◇同九時 野談 『解見野史』 金鍚九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合唱

◇同六時 (福)鄕土歌謠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東)當選作品發表

◇同八時三〇分 (大)室內樂

◇同九時 時事解說

ウテナコールドクリーム

우데나 花印 콜드크림

우데나콜드를쓰면은……

어째살결이항상 젊어보이는가

★살결健康에必要한

豐潤な榮養料です

우데나콜드는乳化가完全한살결의健康을爲하야업서서는아니될滲透力이强한榮養料이다

朝夕가벼운맛사—지로强力한榮養分이皮下기피滲透하야、缺乏한有効脂肪分을豐富하게補給하고、新陳代謝를旺盛케하야血行을조케하며……疲勞한組織과傷한살결에生生한活力을更生식히고、살결의健康을顯著하게增進식힘으로……살결이거칠기쉬운겨울에도살결은恒常生生하고潤澤에넘치는麗艶한彈力을保障한다

겨울살결거칠막음에는特히有効하다……

★어여쁜化粧의基礎

完全な洗顏に

美容과化粧의基礎는于先完全한洗顏이다

우데나에는特히洗顏用의구렌지크림이잇스나콜드로하여도조타

温水에적시타올로얼골을닥근후콜드를발느라純質脂肪分이깁히滲透하야도毛孔의如何한深部의때라도完全히溶解되야體外로排除하고비누의아루가리와가티살결을거칠게하지안코温和하고도完全한洗顏을할수잇다…………

또한使用後의살결을점점어여뿌게하는榮養整肌料이다

純脂肪性榮養料

正價 一圓十錢 五十五錢

세타·설거질후에는반드시우데나콜드를

★冬節에第一魅力的인…

白化粧下に

特히겨울의化粧바탕은 콜드로하여도조타엷게발러도얼골全面에잘퍼지며 가벼히씨처내고粉白粉을발르라自由로히白粉이 떡어밀리지안코 豐麗한化粧美를發揮할수잇다

★이울어진지가自由로히발려지지안을때는콜드를바탕으로엷게바르면훌륭하게된다

粒子에새研究……

살결을매만저서 훌륭한이自然美

★우데나의苦心研究한結果로……粒子의獨特한作用이새로생겻다

★東洋人의살결에가장適合한고흔粒子로서꼭알맛고살결에발려밀리지안는다……살펴지고淸澤한것은더말할수업다

★粒子에高學한明澄度가잇슴으로살결바탕의調子를巧妙하게살리고自然美에넘치는美化한白粉이다

★個性美를發揮하기爲해左의六色이整備되여잇다

肌色 健康色 오—클一號

濃肌色 내추럴 오—클二號

白色 부룬

ウテナ粉白粉

ウテナ化粧料 マンテン石鹸 本舖·久保政吉商店

11.12—7.5

謹賀新年

清津

淸津府浦項洞二四〇ノ一五 張德相 電話二四六四番
黃鍾國
淸津 米穀貿易 富源商會 電話二六五七番
金基德商店
崔雲鶴
淸津府新岩洞 海産物商 張樂天
淸津府港町 米穀商 黃三善
淸津府新岩洞 裕豐商店 趙大行
朝鮮咸鏡北道淸津府浦項洞八〇番ノ八 各種原木 枕木 電柱 淸津一切 賃挽 裵貞基製材所 淸津工場 電話長一九六番 振替京城一四四九九番 茂山工場 電話一三番 住所 茂山江岸線構內
淸津府浦項洞 池昌一
淸津府浦項洞一四〇 朝鮮日報社淸津支局 支局長 崔京勳 總務 崔致勳 記者 龐會淶 集金員 全蓮玉 咸北特派員 吳快一
辛良極
淸津府新岩洞 海産物商 安承泰商店 長電話一六六九番
淸津券番 電話二〇八五番
淸津府浦項洞 德濟醫院 醫師 李萬雅 醫師 張泳志 産婆 李周禎 電話一九六四番

淸津府新岩洞 金剛寫眞館 李基俊
淸津府新岩洞一〇〇番地 北鮮甲皮商會 主 申鳳均
淸津府新岩洞 韓昇旭
淸津府新岩洞 合名會社 國際靴鞄店 代表 尹永麟
淸津府新岩洞 食料雜貨 全春景商店 電話二八五二番
淸津府新岩洞 裕德皮革商店 主 張柱龍 電話二三一六番
淸津府新岩洞 北鮮齒科醫院 秦善信
淸津第一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黃俊國
淸津府浦項洞一四二 普成個人教授 金光義
淸津府浦項洞 金潤鎬商店 電話一七二六番
淸津府浦項洞 李氣秀
浦項洞醫院 醫師 崔英德 産婆 郭聖一
府會議員 元一中
淸津府浦項洞 國際洋行 金尙八
淸津府浦項洞 三光家具店 崔錫俊
淸津府浦項洞 原木製材 朴秉祐商店 電話二三八二番
淸津府水南洞 府會議員 黃相羲
淸津府曙町 穀物貿易 辛鍾郁商店 電話二九五八番
淸津府曙町 東一商會 社長 朱亨順 電話二四六八番
淸津府幸町 醬油味噌製造 梁宛龍商店

淸津府曙町 醬油味噌製造 安重奎商店 電話二四六七番
淸津天道敎 宗理院
淸津國際運送會社 裵泳坤
淸津府浦項洞 國際商會 金文柱 金文亨 金完鎬 電話一八五四番
淸津府浦項洞 國際商會醬油部 代表社員 文亨鎬 金完鎬 電話二二〇九番
淸津府浦項洞 廣信紙物店 主 朴衛權 電話二七八四番
淸津府浦項洞一二三 三重寫眞館 金重煥 電話二一八六番
淸津府浦項洞 金益久
淸津府浦項洞 綿布雜貨商 金光錫
淸津府浦項洞 李容復
淸津府浦項洞市場 北一社酒類部 咸一酒咸北總販賣元 張斗燮 張斗喆 電話二三三五番
崔日鳳
崔日龍

府會議員 金玉培
淸津府浦項洞 鄭白舜
淸津府元町通 米穀商 林敬鎬
淸津府浦項洞 車鍾沫
淸津府曙町 咸北印刷所
淸津府浦項洞 白德鎭 電話二七〇九番
淸津府浦項洞四八 朴均植
淸津府浦項洞 李昌植
朴仙鶴
淸津府浦項洞マケット前 精美堂石版印刷所
黃青松
府會議員 張始亨
淸津普通學校 職員一同
淸津府新岩洞九三 日淸生命 北鮮出張所
淸津府浦項洞 土地建物 有價證券 賣買金融 金基泉
淸津 史七鉉

長興

長興郡廳職員一同
長興面職員一同
安良面職員一同
南面職員一同
冠山面職員一同
大德面職員一同
有治面職員一同
長平面職員一同
長東面職員一同
夫山面職員一同
長興邑內 內科 外科 其他一般 入院隨意 好生醫院 院長 李珍永 電話六八番
長興面杏園里 學校評議員 魏鍾善

長興郡冠山面 面協議員 曾田曉之助
長興郡冠山面 警農 白守寅
長興郡大德面 乾海苔商 竹濱 金東錫
夫山面 中欠禮 張淳鐸 張淳南
長興郡南面 面協議員 李昌燮 同 李啓欽 同 金亨模 同 秦南龍
長興郡 公立學校
米穀 肥料 布木 販賣 社團法人 長興産業組合
全南長興 三成麵子製造株式會社 電話五〇番
長興郡 海苔漁業組合
長興郡安良面 藥酒、濁酒 三成酒類製造株式會社
長興面南外里 警農 金甲基
長興面平化里 警農 高永完
長興面新興里 面協議員 吉峴柱
長興面南外里 面協議員 朴昌式
南面 面協議員 金聲植
冠山面竹橋里 面協議員 齋藤惣一

長興郡大德面 面協議員 具甲得
大德面蓮池里 面協議員 柳錫來
夫山面柳樹里 警農 張淳大
大德面新月酒造場 李亨白 一名太成
全南長興市場通 ⊙朝鮮運送株式會社 代行營業所 主任 李大實 長電話六十七番
長興邑內 司法書士 金祐述
長興邑內 湖南旅館 主 吉永三
司法書士 金廷炫 金富岩
長興面蓮池里 面協議員 金漢周
全羅南道長興郡 朝鮮農林株式會社 長興事業所 主任 李載洵
長興東場通 南興商會
長興本町 雜貨商 石油 朴突模
全南長興東場通 耕文堂印刷所 主 安章鎬 電話六三番
長興邑內 面協議員 朴禧中
安良水套里 警農 金明植
冠山面傍村里 面協議員 魏質良
冠山面竹川里 今村傳次

冠山面防村里 面協議員 金圭淳
冠山面玉堂里 學校評議員 魏謙良
冠山面竹橋里 面協議員 丁炳逸
冠山面竹橋里 面協議員 金東煥
冠山面天年里 朴璟來
古邑金融組合 理事 佐藤嘉孝
冠山面玉堂里 面協議員 魏啓奎
長興郡長東面 丙森義兄 司法行政書士 鄭永植
長平面登村里 金先景
大德面新上里 宋基松
大德面蓮池里 金在桓
大德面鳳木里 李圭赦
大德面鳳木里 李商泰
大德面新上里 金相珉 一名相浩
大德面會鎭里 川西智 車光根
無名氏
長興本町 綢緞布木商 崔仕益
長興本町 冠山藥房 電話四八番
長興 鈴木純次
長興市場通 雜貨商 千興岩
長興本町 綢緞布木商 金容珍
長興邑內 德川軍之
長興邑本町 天一ゴム商會 金大俊
全南長興本町通 綢緞 綿布 雜貨 金鴻培商店
長興本町 綢緞布木 肥料 石油 鄭華壽
全南長興邑市場通り 海産物 雜穀 卸 朴士用商店 電話(外)八(ヨ)
長興邑內 司法書士 郭漢善
長示面楊村里 朴基平
長興郡長平面 司法行政書士 長尾甚助
長平面龍岡里 醫生 韓裕珍

長平面登村里 金[illegible]涂
長平面登村里 申琫均
長東面釜山里 面協議員 安亨淳
長東面釜山里 安衡中
長東面釜山里 金采斗
長興穀物檢査所 山崎忠藏
南面三山里 海苔物 委託販賣 崔文玉
安良面水套里 白元寅
安良面水套里 舟[illegible]商店 主 張[illegible]
冠山面外洞里 金基之
冠山面 內田朝正
冠山面竹橋里 白昌鎬
冠山面竹橋市 冠山旅館 主 朴三吉
冠山面竹橋里 曺秀煥
大德面大里 雜貨商 金炳昊
大德面新月里 大德醫院 金亨基

奉化

奉化郡乃城邑內 官公吏一同
奉化郡春陽 鑛業 金錫根
寧越郡上東面 酒類製造 木材及請負 黃基重 黃基炳 黃基宋 黃基泰
明湖金融組合 權泰甲
法田面法田里 李完相
乃城市場 鄭泰福
乃城市場 活文堂印刷所
壽泉堂藥房 主 潘錫祿
奉化郡乃城市場 化信連鎖店 盛廣社 主 鄭泰福
乃城市場 金珍圭醫院
乃城市場 鄭泰星
奉化郡乃城市場 乃昌自轉車商店 主 邵九睦
奉化郡乃城市場 奉化寫眞館 主 金甲錫
乃城市場 大邱館 主 金順玉
奉化邑乃城市場 天一ゴム 朝日乾電池 總代理店 城一社 主 琴珠淵
乃城市場 世信洋服店 主 李元植
乃城市場 惜陰堂時計店 主 全熙錫
乃城市場 義興泰商店 主 金守鉉
乃城市場 孫德仁商店

乃城市場 劉永植
乃城市場 權重錫商店
乃城市場 化信洋靴店
奉化郡乃城 製粉 精米專門 羅井商店
乃城市場 實費洋靴店 主 權景燮
乃城市場 シンガーミシン分店 主任 鄭大鉉
乃城市場 朝日洋服店 主 兪鎭變
乃城市場 奉化理髮館 主 李溪鶴
奉化郡乃城市場 城文社 主 柳基秀
乃城市場 公益堂 主 張埼
乃城市場 安全商店 主 安亮睦
乃城市場 鄭和植
乃城面都村里 李斗春
乃城面都村里 李潤發
乃城面赤德里 赤德釀造場 主 金輝錫
乃城面都村里 無名氏
乃城面海底里 金昌祺

奉化郡法田面小川 金雲鶴
乃城面海底里 金炳根
奉化 無名氏
乃城面海底里 李象春
奉化郡春陽 春陽官民 有志一同
奉化郡春陽市場 海陸物産貿易、委託販賣、精米、製材、木炭其他附帶事業 春陽物産株式會社
奉化郡春陽 權相經
奉化郡春陽 雜貨 木材、木炭 運輸業 日新商店 主 金正源
奉化郡春陽面石洞 崔錫祚
奉化郡春陽面官陽里 道會議員 李鍾震
奉化郡春陽 製材 木炭 木材 崔泳斗商店
奉化郡春陽 白羊社 韓昌鎬
奉化郡春陽 李京伊
綢緞布木 官鹽雜貨 春橋商店 主 邊德賢
春陽市場 慶州旅館
奉化郡春陽 穀商 權琪淵
春陽面西岩里 西碧停留所
春陽面德邱里 李淵洙
春陽面西岩里 大興電氣株式會社 西碧發電所 崔奇鉉
春陽面牛口峙里 牛口峙釀造場
春陽面牛口峙里 飮食店 主 鄭占宗
春陽面牛口峙里 安東旅館
春陽面牛口峙里 裵瑪植
主 崔守鳳
明湖公立普通學校 廣瀨常一
明湖金融組合 職員一同
明湖面刀川里 面協議員 李相稙
小川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小川面汾川里 鑛山鑛業所 洪淳憲
小川面縣洞 春光一商店代理部 李承海
小川面古善里 古善醸造場 孫振鉉
小川面縣洞 鳴門旅館 德永房枝
物野面梧錄里 金濟康
物野面梧錄里 元昌商店 主 金理燮
物野面梧錄里 金熹斗
才山市場 信昌商店 主 李富雨

才山面 [illegible]
法田面事務所 職員一同
才山面事務所 職員一同
鳳城面事務所 職員一同
明湖面事務所 職員一同
小川面事務所 職員一同
物野面事務所 職員一同
春陽面牛口峙里 金井鑛業所 安惠
春陽面牛口峙里 姜大
春陽面牛口峙里 東興 主 姜石
春陽面牛口峙里 金德
春陽面牛口峙里 金[illegible]
春陽面牛口峙里 三興 主 崔商
工作係 春陽面牛口峙里 金井鑛業所 權重
漢藥商 春陽面牛口峙里 李在
春陽面牛口峙里 金井鑛業所 御坪出張所 高致
工作係 春陽面牛口峙里 金井鑛業所 黃泳
米穀商 春陽面牛口峙里 黃泳
春陽面牛口峙里 金吉
探鑛係 春陽面牛口峙里 金井鑛業所 金東
春陽面牛口峙里 金井鑛業所 沈東
春陽面牛口峙里 金井鑛業所 御坪出張所 李時
春陽面牛口峙里 金井鑛業所 御坪出張所 沈壽
春陽面牛口峙里 金井鑛業所 御坪出張所 申成
春陽面牛口峙里 金井鑛業所 御坪出張所 崔明
御坪出張所 張炳
御坪出張所 尹德
御坪出張所 李賢
法田面召川里 面協議員 金慶洙
法田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法田面法田里 法田醸造場 李日
法田面楓井里 南鎭
法田面訥山里 天奉鑛山 申輔
法田面於旨里 於旨醸造場 李鎭
法田面楓井里 李承
法田面石川里 面協議員 金定
法田面小川里 面協議員 姜
鳳城面遠屯里 遠屯醸造場
鳳城面桐陽里 洪禹
鳳城面鳳城里 主 李輪起 金[illegible]
鳳城面遠屯里 鄭俊圭
鳳城面桐陽里 李[illegible]
鳳城面桐陽里 洪[illegible]必
鳳城面遠屯里 幻宇[illegible]
鳳城面遠屯里 兪[illegible]泰
鳳城面鳳城里 李[illegible]
鳳城面遠屯里 朴[illegible]

謹賀新年

江景

江景邑中町 延壽堂藥房 裵榮鎬 電話三三番

江景邑中町 朝鮮産業株式會社 社長 尹吉重 支配人 李殷序

江景邑中町 海陸物産委託販賣 金允炳商店 電話長六六番 直營天一運輸合資會社

江景邑中町 和信連鎖店 朴順圭

江景邑會議員 丁興燮
江景邑會議員 梁奉玉
江景邑會議員 金養浩
江景邑會議員 金容琦
江景邑會議員 石本盛治
江景邑會議員 伊賀倭治

論山郡彩雲面三巨里 金晟煥 金東賢 柳志洪

論山郡陽村面道坪里 忠南道會議員 姜永植

江景邑錦町 金容奎 金容元

益山郡皇華面高內里 皇華酒造場 李炳觀

益山郡皇華面麻山里 朴東來

江景邑中町 穀物精米商 江景商會 電話二〇九番

論山郡[illegible]村面仁川里 [illegible]主 金瑨淙

江景公立商業學校職員一同
江景公立實科女學校職員一同
江景公立小學校職員一同
江景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江景邑中町 李鍾泰洋靴店

扶餘郡林川面普成里 金鎭哲

論山郡 忠南自動車運輸株式會社 電話六二番

江景邑[illegible] 永保南鮮農場

益山郡望城面茂形里 金德煥

大同社江景支部 食肉組合員一同

江景中華商務會

江景邑西町 各種高級ゴム靴 肥料食鹽 都散賣 李康福商店

論山郡豆磨面新都內 上帝敎總本部

江景郡彩雲面中里 精米業 朴昌瑩

江景邑北町 縫製士 南廷瑔

江景邑中町 海陸物産委託販賣 和成商會

江景邑本町 消防組頭 石本盛治

江景邑西町 錦江輪株式會社 電話一四四番

江景邑錦町 鄭沂燮

江景邑錦町 崔潤權

南朝鮮電氣株式會社 江景出張所

江景邑[illegible]町 高橋精米所

益山郡望城面茂形里 林喆昊

江景邑西町 姜錫璜

江景邑大和町 黃圭煥

江景邑黃金町 金公平商店

江景邑本町 大成館 電話一四八番

江景邑西町 明月館 電話一八八番

江景邑黃金町 扶餘旅館

論山郡內初等學校 (但論山江景を除く)

江景邑中町 高相俊 電話一七九番

江景邑北町 合名會社 發祥社 主任 金容濱

論山 尹夔炳

江景邑 電話四二番

論山郡 陽村面長金宅鉉外 職員一同

江景邑中町 李殷序

江景邑本町 株式會社 三益社 支配人 田在鎭

江景邑大和町 共信材木店 電話一七五番

益山郡望城面新鉛里 桃源 釀造元 金善酒造場 主 金塤善

江景土曜

江景邑中町 中央醫院 金碩坤 電話三三番

不二江景農場 山田德吉

江景邑西町 江景醫院 方圭煥 電話四番

江景邑西町 湖南藥局 藥劑師 李南柱

江景邑中町 壽星堂大藥房 主 盧淳書

江景邑中町 東一堂藥房 李雲洙

江景邑西町 綢緞布木商 發祥社 電話一〇七番

忠南郵便所長會 第五區向上會

連山郵便所長 崔鍾仁

江景邑[illegible]町 柴炭商 二光商會 梁碩柱 電話一七六番

江景邑中町 水車輪總專門製作 南鮮木工場 主 金敬猷

江景邑[illegible]町 江景勞働組合 電話一七六番

論山旭町 榮春商會 裵榮春

江景邑西町 旣製洋服 洋品雜貨 關東商店 主 金承泰

江景邑大和町 李龍華

江景邑錦町 江景牧場 電話一六二番

江景邑中町 海陸物産委託販賣 三成商會 朴俊燮 電話一八〇番

江景邑北町 閔中植

江景邑西町 新化洋服店 李利範

益山郡望城面內村 黃熙壹

江景邑大和町 錦江自轉車店 主 金昌根

江景酒造組合

江景邑 完春醬油釀造所

連山驛前 李鍾珍

江景邑黃金町 牛皮貿易 李鍾和

益山郡皇華面鳳洞里 金瑋煥

益山郡望城面內村 李斗熙

論山郡九子谷面梁村里 尹協重

江景邑錦町 鄭淳璜

益山郡皇華面鳳洞里 金文煥

江景東町 李文鎬

江景邑黃金町司法書士 李永穡

江景 西島寅吉

江景邑中町司法書士 丁元燮

江景邑中町 ゴム靴 ズック靴 藤村商店

江景邑中町 尹東燮

江景邑錦町區長 卞相洙

江景邑和町 李英九

大同社江景支部長 崔童春

扶餘郡良化面水原里 金仁培

益山郡皇華面安心里 金熺式

江景郵愛會

三陟

三陟郡近德面交柯里 酒造業 金洙善

三陟郡北坪市 土地仲介業 金東燮 曺圭容 朴東泰

遠德漁業組合長 李禹振

臨院港 遠德漁業組合 職員一同

北三面松亭里 水産業 金彥卿

江原道三陟郡遠德面莊湖里 莊湖合同釀造組合

三陟里 高級洋靴專門 三昌洋靴店 主 尹應範

三陟邑 金東赫

三陟郡[illegible] 鑛業 李奉洙

所達面古士里 所達釀造所

三陟郡農會 職員一同

三陟郡北坪市 東光醫院 金光洙

江原道三陟郡邑 東海興業株式會社 三陟支店 振口座京城二六二〇四番 電話三陟一九番

三陟郡三陟面校里六五九番地 江陵電氣株式會社 三陟出張所

三陟郡近德面交柯市 和信連鎖店 三昌商會

近德面交柯市 藥種商 李潤康

三陟邑 三陟釀造合資會社 電話三陟一二番

三陟郡近德面宮村 宮村釀造組合

遠德面長 尹龍源

黑橋

京義線黑橋驛前 有慶醫院 院長 白[illegible]燮

黑橋市 鄭道沁

京義線黑橋驛前 常信洋服店 主 李鳳洙

京義線黑橋驛前 雪龍理髮館 主 金宗淳

京義線黑橋驛前 玉光堂時計店 主 朴尙鎬

京義線黑橋驛前 永泉精米所 主 黃準商

京義線黑橋驛前 金星自轉車商會 主 金冰玉

京義線黑橋驛前 光林自轉車商會 主 林仁根

長湖院

劉重植商店 電話七番

長湖院 清渼面事務所 職員一同

栗面事務所 面長 李昌烈

甘谷面事務所 職員一同

雪星面事務所 面長 朴天九

東一銀行長湖院支店

竹南公立普校 職員一同

長湖院金融組合 理事 東田知己

[illegible]專賣局長湖院販賣所長 孟文榮

長湖院砂防事業所 職員一同

長湖院興産組合

長湖院郵便所長 山田二一

長湖院齒科醫院 齒科醫師 崔昌福 梁世煥

權寧直醫院

趙慶華

學校評議員 金漢相

桑柱玩

鄭鎔海

全世根

和信連鎖店 金鍾旭

廣進商會 電話九番

綿絲布 雜貨 李福伊商店

和洋雜貨 シンガ裁縫機 蓄音機 同和商會 主 李觀衡

泰和釀酒場 李命淑

長湖院穀物協會

穀物 肥料 精米 三信商會 電話五番 電略(〇サ又八(サ)) 振替京城一六三六九番

三共精米所 電話四〇番

泰華精米所 電話三三番

永信精米所 電話二一番

三成精米所 金許順成 金許煥成

海星精米所 李聖雨

共信商會 電話四一番

甘谷面旺場市 東星精米所

穀物商 崔在石

朴和春精米所

朝鮮料理 海東館 主 李孝順

朝鮮料理 大興館 主 [illegible]點奉

甘谷面旺場市 金剛會館

甘谷面旺場市 松竹園

支那料理 慶和館

半島寫眞館 主 崔錫碩

新盛洋服店 主 康永洙

醫業 秘藥 代理店 三信堂醫院 金弘基

柳井旅館 主 井口千藏

金裕奭商店

安城三星商會長湖院支店

京南旅館 電話二二番

世一堂藥房 主 金在猷

◎京畿運送株式會社長湖院支店 金錫旭

盧有煥商店

綢緞 布木 金物 ゴム靴 共榮商會 主 李元鎔 李鳳淳

金星洋服店 店主 下山貞甲

甘谷面旺場里 長院農場

旺場市 三和商店 支店 長湖院市

陰城郡甘谷面旺場里 養老保險

驪州郡占東面[illegible]里 沈[illegible]燮

長湖院金融組合評議員 [illegible]五

李[illegible]洙

朴[illegible]

李圭泰

李相德

齊信堂時計店 主 殷太福

廣成木工所 主 河錫玄

尹[illegible]燮商店

宇信寫眞館 主 嚴春興

布木商 張寅華商店

昌信堂藥局 主 李建浩

カレンタ富一商會 主 徐廷秀

고무商會 主 崔基相

尹龍燮商店

唯一藥房 主 韓達洙

長谷自轉車舖 主 孫斗千

金鎔 玉洋服店

大邱木工場 主 李安洙

玉宗

靑岩面 商業 鄭栢永

靑岩面 農業 姜信服

靑岩面 實業 鄭鎬烈

丹城面虎里區長 鄭顯珥

山淸郡丹城面 鄭性龍

丹城面虎里 鄭鍾時

山淸郡丹城面 鄭道時

仙洞 韓碩愚

月橫釀造場 趙鏞元

朝鮮日報社玉宗分局 顧問 梁在亨

文岩市場 裵守萬

文岩市場 金寬壽

玉宗面協議員 河壬聖

玉宗面協議員 張自誠

玉宗面 實業家 崔在萬

玉宗面靑龍里 鄭和龍商店

靑龍里 李文煥商店

[illegible] 徐萬淳

玉宗面砂防主任 圓田康助

玉宗面長 鄭[illegible]鎬

斗陽里 李在燮

茶井洞 梁在鎬

茶井洞 梁壬燮

靑龍里 白[illegible]基

玉宗金融組合職員一同

靑龍里 白雲起

無名氏

玉宗面會計員 鄭喂和

玉宗 許萬頭

靑岩釀造場 河萬植

玉宗公普校 金千鎬

玉宗公普校長 淸塚久平

宗化釀造場 閔明鎬

宗化里 崔圭鎬

玉宗面協議員 郭桂宗

大谷里 張允鎬

加宗公普校 金龍祚

靑龍里 李鉉鎬

玉宗面 趙鏞先

玉宗公普校評議員 權大燮

金永顯

鄭在錫

玉宗面 許孟銖

靑龍釀造場 權洵容

實業家 權丙律

回基町과新村에 普校一校式增設

學級增設은追後決定할方針 十二年度府豫算查定開始

경성부에서는 방금 소화십이년도의 예산사정(査定)에 착수하엿는데 먼저 일부 일부의록별경제예산을 사정하고서 일반경제는 이월중순부터 사정을시작하야 이달하순경에 끗내게될터인데 예산총액은 이미보도한바와가티 일천사백만원가량될모양이다 이부특별경제의 예산에는 회기정(回基町)과 신촌(新村)에 보통학교한개식 신설할것과 이미설치되여잇는 부내이십사개의 공립 보통학교가운데에 자연증가로 학급증설을 필요하는 학교에 학급을증설할것등이 중요한 항목이라한다

그런데 학급증설수는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액수의 결정통지가 아직 업스므로 그통지를 기다려서 정하게 될터이라한다 작년에 취학못한 아동이 오천명이나 되엿스므로 대증설의필요는 무론할것도 업지마는 현재의 재정상태로서는 도저히그 실시는 수용할만한학급증설을 실현하기도 용이치안흔 형편이라한다

假府吏徵收詐欺 龍山署에서逮捕取調

부내 산수정(山手町)구십오번지에사는 최병찬(崔秉讚)(二?)은 원경성부고원이엇는데 얼마전에 퇴직하엿스나 그생활에궁하여엿슴 일자(?) 자기가경성부원 징세원(徵稅員)이라고하고 부내도화정(桃花町)으로 십여처를도라다니며 토지차지료금징수를하여 매호일원 삼십전내지 륙십전씩 사취한것이 소관룡산서에 탐지되여 지난십이일경에 체포하야 방금취조중이라한다

弘濟公普는 六七月中竣工

結局二學期부터開校

공사비 사만이천팔백원으로홍제정(弘濟町)에 신축중인 홍제공립보통학교는 삼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엇스나 공사의지연관계로 륙칠월중에라야 끗내게될 모양이라한다 그래서 결국이학긔부터라야 비로소 개교하게될 터이라한다

各界의宿望인 仁川商工協會

來十一日創總豫定

【仁川】 대도시로 자처하야 무역액이억원을 돌파하엿다는데 인천으로서 아즉도 우리의 상공계를 총망라할만한 단체가 업슴은아니라 과거에 부분부문의 동업조합형식으로서 조직된 단체가 수삼개잇섯스나 그나마조직된지 얼마가 못하야 유야무야중에 침체된 비참한 상태에 잇슴을 항상유감으로생각하고잇든중지간에서는 작년시월부터전인천상공계를 총망라할 인천상공협회를조직코자 창립사무에분망한다함은 수차보도한바와가거니와 근근 동준비사무도완료되고 신입회원도답지하야 느저도오는 십일일경에는 공회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키로하엿다는데 이로서 우리상공계의 다년숙망이든 단체가 나타나게되리라하야 사계에서는 발서부터 굴지고대하고 잇슬뿐아니라 동회에서는 창립되면서 곳 구연말을 기하야 연합경품부대매출를 실시하 …라는바 어떠케 인천상공계에 당은 경품부대매출의 오색기가 영영히 복조업대에 흔날리리라 한다

留置된親友를팔아 金品을詐取衆遊

【仁川】 유치된 친구파라현금을 사취(?)한 무리한-인천부송림정(仁川府松林町) 김봉안(金鳳安)(?)은 과방부면허 치과의사로써 인천서에 체포되야 엄중 취조를 받고잇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그후 그의 친구인 김모(金某)라는 변변야 사십세가량되야 보이는 자가 김봉안의처를방문하고 김봉안을리면 원의 벌금에 처하얏스니 벌금을변통하야달라고 함으로 그의처는 백방으로 주선하든끄테 우사십원을 변통하야 그에게전하얏든바 그는 부족금은 자기가친구들 사랑하는뜻으로 보태여내노켓다하고 현금 사십원을 바다갑후 일주일이지나도록 당자는방면되지아니함으로 그때야비로소속은줄알고 소관서에 고발하야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全日本中等럭비 最後의凱歌는 培材高普陣頭에

場內震動한應援歡聲 台北一中을九對八로擊破! (詳報)

【大阪支局七日發電】 전일본중등럭비제의준결승에 각지방에서 추리고 추려뽑은 열두강팀을 한마당에모아 패권을 다투는 제십구회전일본중등학교 럭비대회최종일인 칠일오후시반부터 남갑자원(南甲子園)구장에서 우리의지보인 배재고보(培材高普)와 대만대표(臺灣代表) 대북일중(臺北一中)의 결승전이열리엇다 이날은 우리배재의 승리를 축수하는 희망에넘은 동포들이 「스탠드」를대군대에 진을치고 긴장과 흥분에싸여 열렬한 응원을하고 잇섯다 전세는 벽두부터문자그대로백병전을연하드니 전반전에배재군적진에용약돌입하야 기선을 제하고득트라이를잡점을 어드니 대북일중도이에 굴치안코 악전고투하엿스나 전반은삼대령으로 배재리-드 후반전에드러가배재군의연맹의맹위(猛威)를발휘하야트라이와 패날티골로 련속득점하니 이에대북일중군 분기하야팔정을만회하얏스나 드디여 구대팔이란 아기자기한 스코어로초등장의 배재군이 개가를올리엿다 배재의우승을 목격하든 동포들은 감격에넘치 눈물을 흘리는등 극적장면을 전개하엿다

「全君의功勞에 敬意를表한다」 李鍾琬氏談

우리럭비-개의 선배로서 일즉이 보전(普專)과 양정(養正)의 럭비-부를 지도하든 리종완(李鍾琬)씨를 장사정(長沙町) 자택으로 차즈니 씨는 감개무량한 안색으로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럭비-의 정신이『싸와라』『나가라』의 견인불발의 투지입으로 이번배재의 우승은 즉우리의 사려잇는 용맹을 상증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에 럭비-가 드러온지 려사는 짤은데다가 중등팀이라고생각합니다 이번 배재의우승을계기로 남성적인 럭비-경기를 더욱 장려하야 어든 … 경의를표합니다

(사진은 전유량씨)

霸權確保에注力 喜色滿面한 亞扁薛羅校長談

럭비-조선의 용명을 현해탄건너저편에서 널리선양한 배재고보(培材高普)의 『아펜설라』교장을 자택으로 차즈니 희색이 만면하야 다음과가튼 소감을말하엿다

무엇보담도 열렬한 성원과격려를하여주신 일반사회여러분에게충심으로 감사의뜻을표합니다 그리고 우리학교럭비부가창설된이래삼년동안 꾸준한 지도를앗기지아니하신코-치전유량(全有亮)씨의공로가 즉 오늘의승리를 가저온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항상 학교당국으로서는 이기는것 보담도 오히려 『페아플레이』를 하야 정정당당히 싸호라고 타일러왓습니다 끄트로 선수각자의 분투를 치하하는바입니다 오즉이것으로 만족할바가 아니고압흐로는 어든바 패권을 회보하기에주력하겟습니다

優勝하기까지의戰績

◇第一回戰

京都代表 京都一商 19 {13…0 / 6…3} 3 早稻田實業 關東代表

朝鮮代表 培材高普 8 {5…0 / 3…3} 3 天理中學 大阪代表

滿洲代表 撫順中學 11 {6…6 / 5…0} 6 秋田工業 東北代表

兵庫代表 神戶一中 13 {3…3 / 10…0} 3 脇町中學 四國代表

中國代表 崇德中學 3 {3…0 / 0…3} 3 福岡中學 九州代表

臺灣代表 台北一中 37 {23…3 / 14…0} 3 北海中學 北海道代表

◇第二回戰

京都一商 14 {8…0 / 6…5} 5 神戶一中

培材高普 11 {5…0 / 6…0} 0 撫順中學

◇準決勝

台北一中 29 {21…3 / 8…0} 3 京都一商

培材高普 11 {5…0 / 6…0} 0 崇德中學

◇決勝戰

培材高普 9 {3…0 / 6…8} 8 台北一中

◇歷代의優勝校

◆第一回…同志社大學
◆第二回…同上
◆第三回…慶應大學·中學(分)
◆第四回…同上
◆第五回…同上
◆第六回…同上
◆第七回…同上
◆第八回…京都第一商業
◆第九回…同志社中學
◆第十回…同上
◆第十一回…同上
◆第十二回…慶應普通部
◆第十三回…京城師範
◆第十四回…同上
◆第十五回…同上
◆第十六回…秋田工業學校
◆第十七回…台北一中과秋山中學
◆第十八回…天理中學校
◆第十九回…培材高等普通學校

綜合籠球詳報

全日本綜合 籠球選手權大會의 男子部戰은 지난五日부터 東京 神宮外苑「코-트」에서 열린바大會第三日인 六日準準決勝까지의 各單의戰績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立教 大學48…16 橫濱 高商
京都 帝大46…25 浦高俱樂部
西野田職工57…24 札幌 商業

【準準決勝】
普 專52…42 千葉商OB
早稻田大學36…24 立教 大學
京都 帝大37…36 延 專
明治 大學81…29 西野田職工

【準決勝】
早稻田大學44…26 普 專

【經過】 普專對早稻田大學籠球準決勝戰은 七日午前十時二十分부터 神宮外苑「코-트」에서 三渡三本兩氏審判下에 開始되바 早大軍은「센터-점프」를利하야 攻勢를 取하엿스나「패스」가 如意치안어 得點치못하고 普專軍도 得意의 長距離「슈-트」的中치못하니 開戰七分에 五對五同點되여 其後普專은 長距離文 早大는 『렐리』攻으로 攻擊하야 得點은 前半戰에 十二對十一로 早大軍의 『리-드』後半戰에 드러가 早大軍은 開始直後에 宗像, 川原, 松山諸選手의 連續投入으로 二十三對十三으로 『리-드』하야 結局四十四對二十六으로 普專軍은 涙惜敗하엿다

來十日에열릴 神宮氷上大會 男女七十餘名參加

朝鮮氷上聯盟主催의 朝鮮神宮奉賛體育大會氷上競技는 來十日 午前九時부터 淸凉里링크에서擧行하리라함은 旣報한바이니와同大會에는 男子一般部에 江界, 熙川, 安州, 新義州, 義州, 平壤, 永登浦, 京城等地에서 四十九名이 出場케되엿스며 女子部에는 梨專, 淑明女高, 第一高女, 龍谷高女等에서 二十五名이 出戰하리라는바 大會當日까지 淸凉里링크의結氷이 完全치못하면 會場을變更하야 西氷庫驛附近링크에서 大會를열기로되엿다한다

大阪卓球 遠征消息

【大阪支局發電】 第三回全日本男女中等學校 個人卓球選手權大會는 七日午前八時부터 大阪市YMCA體育館에서 行한바 이에出場한 培材高普의崔根恒君은 決勝戰에드러가 浪速商業의印石에게 三對二로惜敗하엿고 同德女高의裴珍玉孃은 準決勝戰에敗하엿다

全日本卓球決勝

全日本學生對抗卓球大會第二日은 六日午前十時부터 東京府下學校에서 各部決勝을 行한바 그戰績은 다음과갓다

◆第一部(大學)決勝 早稻田大學4…2關西學院
◆第二部(男子中等)決勝 名古屋電氣4…2橫濱商業
◆第三部(女子中等)決勝 四日市高女4…1郡山高女

運動界集會·人事

◆白狗滑氷俱樂部에서는 今八日午後七時부터 鍾路朝鮮體育會事務室內에서 緊急協議會를열터이데 一般部員은 無漏參席하기를바란다고한다

◆金容起氏=이번朝鮮學(?)-코-치로就任人事次來社

中等學校三個校 增設이緊急事

感激할 教育篤志家活動

開城教育界의概況

開城은 地理上 歷史上으로보아 重要地帶임에도不拘하고 風光이 明媚秀麗한점으로보아 教育都市로適合한 文化都市이다 이러한松岳의 精氣는 만흔人材를 培養할만한 要素를갓고잇섯건만 오날것 專門學校 施設하나업슴은 甚히 遺憾스러운일이다 그러나 私立 男女初等學校의 設備만은 比較的 完全한 편이여서 昨年入學率로보면 志願兒童七割을 收容하엿다 한다 現在 學校數로는十一個所인데 全生徒數가 五千五百名을 突破하는現象은 이를 事實이 證明하는것이다 그런中세개의 公普校를 除한外엔 남어지 五個所는 私學機關으로 단연 公立을 凌駕하고잇다 그中 松都普通學校는 官教部의 財源枯渇로 一朝에 閉鎖의 運命에 이른것을 現校長尹永善氏의 特志로서 引繼經營中이며 中京普通學校가튼 悲運에빠진것을 德望잇는 開城有志黃中顏氏가 獻身的努力으로 單獨經營中이며 貞和女學校는 敎育界의恩人 故金貞惠女史의 後繼로 金鎭弘女史가 全財産을 喜捨하야 뒤를이어가고잇다 其外에 好壽敦女普校及 美理欽女校는모다 外國宣敎人이 育英事業으로 經營하고잇다 그런데 來年에 北部方面에 高麗公普校가또 增設된다하니 育英界의깃븜이라할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中等教育機關의 現況을 잠간打診해보기로하자 松都高普, 開城公立商業學校 好壽敦女高 이러케三校가 잇는中 現在籍生이 都合 一千六百名에 不過하니 財力 一億圓을 算하는 富都開城으로보아 實로 북그러운일이다 그래도 松都高普는 우리開城教育界에 빗나는 자랑거리다, 開城實業有志들이 赤誠을 모아 一躍七十萬圓의 財團法人을 完成하야 內容充實을 完全히하고잇다 松岳山麓에 礎石으로하야 花崗三層建物이 氣勢조케 걸터안즌양도 雄壯하거니와 特別教室로 理化學室博物教室等의陳列內容은 全朝鮮第一의定評이잇다 이외에文藝均氏는 同校에一萬圓의巨額을 喜捨하야 理想的寄宿舍를 新築케한것과 金光鉉氏가 千圓을寄附하야 記念鍾塔及 『싸이렌』을 建設케한것은 特記할일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컨대 二千名志願에 不過三百名남짓한 學生을 收容하는開城教育界를 도라볼때 이로써우리는 滿足할수업다

商記 文, 金兩氏와가튼 有爲敢能한 教育界恩人이 만흔出現해서 男女中等學校새게는 더세워야 될줄안다

以外에 幼稚園으로는 六個所가 四部에配置되여잇는바 大部分이 基督教事業機關으로 되어잇고 오즉松都幼稚園만이 私立機關으로 異彩를보이다가 이亦是 後援者가업서 結局 오는날 문을닷고 말을바開城에 숨은有志 河奎杭氏가 復活시킬결심에서 斡旋中이라하니 感謝할바이니다

끗으로 無産兒童機關인 學院을 잠간紹介해보자 現在 市內에잇는 學院數가 松都書院商業講習所 成均學院 高麗女子館 貞芝學院 松岳學院, 國語講習, 宣等 十個所나되는中 生徒數가 一千五百名이나된다 대개이들은 家庭貧困, 其外年齡超過로 就學의 機會를 喪失한男女兒로서 瀧落한 삼會한希房에서 文盲의獨野를 打破하려는 가난의勇士들인바 開城엔 이런無産兒童機關을 爲하야 物心兩面으로 努力하는 분이 몃분잇다 李賓紹氏는 엽는財産에 金五百圓을 喜捨하야 成均學院을 增築한후 校長이되엿스며 徐乘源氏는 自進하야貞芝學院을 經營中이며 李觀敦氏는 各處無産學院에 自進하야 赤誠丹心의 同情을 表하는바 昨年만해도 新設 貢獻等 許多한 美擧善事을 갓고잇는特志家이다

江陵

中樞院參議 江原道會議員 崔準集

江陵木曜會

江陵邑 朝鮮料理 永樂館 主 金尙學 藝妓 鄭蘭姬、朴美鶯、洪蓮花、金愛仙、南宮明月、申錦仙、朱錦子、李錦花、申錦珠

京春鐵道株式會社 貨物自動車部江陵支店

江陵印刷組合 組合長 曺圭常 主任 崔燦允

江陵郡農會

江陵郡江陵邑林町 內科、小兒科、漢藥部 第一醫院 醫師 張達浩

江陵邑旭町 江陵合同酒造株式會社 電話五六番 一二〇番

江陵獸肉販賣合資會社 代表社員 金振格

江陵 吉田祐四朗

アベマキ、樹皮、木炭、木材 朝鮮特產物合資會社 代表者 堀江慶一 本社 江原道江陵本町 出張所 京城府鷺梁津

望祥面墨湖津 墨湖漁業組合 職員一同

江陵郡望祥面 繁榮會

綢緞布木、和洋雜貨 全相舜商店 電話一二五番

合資會社 泰昌商會 代表社員 劉明順

江陵土木管區 職員一同

江陵公立普通學校長 鈴木盛

江陵邑旭町 海東物產株式會社

江陵邑林町 崔燉昇

江陵邑本町 井出龜

江陵酒造 合組

海陸物產委託販賣 大東商會 主 崔燦映 電話一〇九番

海陸物產委託販賣 英信商會 主任 李英敏 黃子淵 電話一三四番

朝鮮麵子株式會社 江陵支店

朝鮮蠶業開發株式會社 江陵買繭所 電話一三九番

江陵醫院 職員一同

江陵邑稲岡町 古山醫院

江陵郡沙川面板橋里 海月 金鵬起

旺山面 職員一同

江陵邑 朝鮮料理 英春館 主 李英春 朴九子

江陵邑 登錄物 各種果物 六六商會 主 宋秉柱

明治生命保險代理店 諸紙文具 圖書運動具 普文堂 主 李昌培

江陵邑 亞細亞機工社

成德面 職員一同

望祥面發翰市 三井洋服店

玉溪面 職員一同

望祥面長 韓昌愚

江陵郡墨湖港 江原道鰛油肥製造業水產組合 墨湖出張所

望祥面發翰里 醫師 金善煥 濟衆醫院

望祥面 職員一同

江陵邑大正町 普成洋服店 主 許善九

玉溪面長 崔鎭泰

玉溪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江陵郡玉溪市 綢緞布木 姜泰熙商店

江陵郡墨湖港 明月館

望祥面墨湖港 江陵產業株式會社

江陵郡望祥面 閔丙杰

江陵邑 佐藤醬油場

沙川面長 曺日煥

江陵電氣株式會社 注文津出張所 崔元集

江陵郡新里面長 崔燦翊

注文津 江原道鰛油製造業水產組合

丁洞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注文津 野原茂八

注文注里 漁業組合

城山 熊崎萬四郞

江陵邑 毛織布統成專門 イズミヤ洋服店

江陵邑 東明旅館 主 朴黃龍

玉溪市 泰和醫院

望祥面 牛車組合

玉溪市 和洋料理 長春屋

玉溪金融組合 職員一同

玉溪金融組合長 崔錫鳴

墨湖港 明星理髮館 主 朴興龍

金城

金專俱樂部

金剛線金城驛前 酒造業 運送業 金城商會

金剛線金城驛前 金城醫院 公醫 申丞雨

金城公立普通學校 校長 池田顯三

金城驛前 李鍾敎商店

金城驛前 嚴柱穆商店

荒竹正吉

金城金融組合

小城原兵作

金城驛前 回春堂藥房

金城驛前 同興昌商店

金城和信連鎖店

江原道會議員 朴京鎬

金剛山電鐵線金城驛前 中華料理 高一煥

金城驛前 中和料理 松成館

德順興商店

興水

山水面事務所
龜淵面事務所
德在面事務所
內德面事務所
木甘面事務所
土城面事務所
龍坪面事務所

淸溪公立普通學校
興水公立普通學校
山水公立普通學校
公德公立普通學校
龍坪公立普校長 北村紀
德在公立普通學校
馬洞公立普通學校

興水金融組合 組合長 鄭昌熙

文思安

馬在圭

名倉大昌釀造會社 社長 電話四番

新興精米所 李永福

京義線興水驛前 東明醫院 醫師 方士俊

興水專賣局販賣所 販賣所長 朴載鈕

百貨一般 雲龍百貨店

綢緞布木 洪在厚商店

興水醫院 院長 李麟載

興水齒科 金台煥

興水郵便所 職員一同

和洋雜貨商 食料品 華成商會 李鎭路

成龍淳商店

西鮮電氣會社 興水出張所

朴鳳梧

安永國

運送店 許植

事實特許 ビチリントク

漢藥 大同藥房 金俊錫

永興園

德興館

東倉 李智聖商店

文榮生

白永俊

王樹昇

河錫俊自轉車店

三省堂漢藥房

宋汎三商店

李相元

孫道夫

新溪 李錫烈

京英商會本店 京英商會支店 主任 李英俊

興水 李致華

李興謨

本格的躍進時代

朝鮮商工會議所會頭 京城商工會議所會頭 賀田直治

昭和十二年의 日本財界는 多事한 昭和十一年의 財界를 承하야 國內事情과 國外事情의 影響下에 그前進을 繼續할것으로 豫想되는바 [illegible] 行路를걸을것을 豫信하지안호면아니되리라고생각한다 그리고 財界의 行路는 政治、外交、社會의 環境에도 支配되는일이 만흔것이다 日本內地의 財界는 非常時中의 非常時에 際會하야 準戰時的財政方針下에 卅億圓의 大豫算을提出하고 軍需工業의 勃興 國防產業의實施 國民經濟의改善乃至 貿易戰爭의活劇을보게되는것은 必然으로 幸히 農村의 好收、値高에 依하야 農村購買力이 相當하야 市況이 振興될것이며 米國好氣景에 依한 生絲와 生絲製品의 輸出도 相應하야 期待할수잇고 綿絲布、人絹의 需要增에依한 纖維工業界의 活況도 期待되나 重工業의 基礎原料인 鐵材의 不足과 如한은 此等諸工業의 能力을 弱하게하며 生產品高를 招來할것이다 또 日本에가장 缺乏한 石油와 代用石油의 事業에 向하야 各方面에서 犧牲的으로 國策的努力에 加擔할것인데 油의 不潤澤또는 油價의 騰勢를 招來할것이며 金融도引締되야 總面的으로 物價의 騰貴를보게되리라고 想察되다 다만 此間에 處하야 統制經濟의 施設은 其步를 進하며 그의成否또는 適否는 日本內地財界를 支配하는 主動力이될것이다 對中外交及貿餘의 對外政策의如何가 財界에 미치는 影響은 甚大하야 目下豫想키가 困難한 形勢이다 또 對內的으로는 官僚、軍部、民間의 協和가 財界의振否를支配하는 基礎條件인데 目下多少의滿足키어려운 狀態도잇고 當議會의形勢도 相當히波瀾이잇스리라고 想像되나 由來日本國民은 一段有事時면 반드시和하야 [illegible]皇室中心下에 翕然一致의오랜傳統을 有하며 臨時하면 [illegible]하야國民中堅層의 健實味未來의 國民인 少青年의 健全한活動等 新興日本의 前途에 幾多의 壓迫이잇슬지라도 그國運의 旺盛進路의 堅實함이잇슬것을 自信한다

日本財界로서도 모름즉이經濟外交、國防의協調를 期하고農山村의更生、鑛工業의 合理化 均整化、中小工業의 振興、商業貿易의刷新 金融機關의 統制充實乃至 交通通信機關의 統制充備等 一切의 經濟產業機構의 革進에 對하야 官民一途 能所에 應하야 努力活動하지안호면 안되다 進步計劃과 共히摩擦排除에 勇進하지안호면 안된다 또 日本內地안에 局限하지말고 眼界를 널리하야 外地全體는勿論 日滿經濟聖國의 基調下에 海外發展을 策하지안호면 안될것이다。

盟邦 滿洲國은 建國五年을마저 諸般의 狀景에잇서서 新興躍進의 途上에잇다고 豫見되다 다만 產業開發 五年計劃下에多大한 資金을要하며 賦稅도 併在分散의戰場에 [illegible]하얏다고는하나 決코 鎭定의손을 느저서는안될것이며 外交當局의 形勢에 [illegible]치어外交 國防을하지 안호면안되다 不可分關係의 盟邦日本과 同心一體 健全有力한 經濟關係에依하야 諸般을비롯하야 各經濟機構의 適切한 經濟活動을 進行하고 特히 겨우河川으로 接壤한 朝鮮滿洲兩地의 提携依存을 密接히하고 그中에도 處女地 東北滿 北朝鮮 日本海對岸 日本內地와의 協調連絡에 關하야 一層施設과 努力과를하지안호면 안될것이다

日本의 經濟圈으로서는 于先內外地의 結合下에 滿洲國을비롯하야 北中 南洋의經濟交通을 緊密히하고 나가서는 中國本土 暹羅 滿洲 印度其他의 未接觸地의開拓을 講究하며 波瀾不絕하나 歐米諸國과의 角逐을調和하야 되도록 平和裡에 日本帝國의 地步를 向上하지안호면안될 重要機에 直面하엿다고 생각되는데 和戰은 狀勢如何라고 覺悟하지안호면안된다

此間에 處하야 朝鮮은 帝國經濟의 重要位地와 使命과를重要視하야 旣往의 成績을 根據로하고 다시 資源을일구며 產業을 整備하야 農工併進의 發達로 向하야 最大의 努力을하지안호면 안될것이다

朝鮮의 今年은 前年의 農業凶作에 對하야 諸事業、諸工事의 勃興으로서 緩和補成을 講究할 必要가잇다 多幸히 鑛工業의 新興、諸工事의 着手、勞賃의 散布、日本內地資本의 誘入、商業貿易의 刷新、交通、金融機關의 强化 乃至朝鮮內部民間實力의活用、게다가 總督府의 積極的財政計劃(昭和十二年度에 對하야 四億三千萬圓國庫豫算의 [illegible]、今後 一層의 政策 積極化가 期待된다) 等諸般의 [illegible]을 基調로하야 官民雙方의 [illegible] 努力에 依하야 朝鮮財界의 [illegible]가 期待되는터이다 即以上을 再說하면 國家的、國防的과 國民經濟改善上의 諸產業은 前年의 成果를 承하야 向上發展할것이며 從來以上 鑛金屬의 利用、石油液化、無水酒精、木材乾餾、[illegible]、漁業 其他 重要工業의 發展、中小工業과 副業的工業의 發達、國私鐵道、道路、港灣、都市計畫、發電、諸工事의 進捗、治山治水의工事 乃至 交通通信 金融機關의 强化等 多歧多端한 事業을 展開하고 勞働者缺乏을 生하리만치 勞賃의 全面的散布가 期待된다。다시日本內地資本과 店舖의進出도 顯著할것으로 朝鮮은 產業經濟의 本格的 躍進時代에 드러갓다고 觀察되나 다만 事業新設에 支障되는 事象도 적지안타 모름즉이 此等의支障을 除하고 投機의弊風을 打破하야 男女共히의 氣風을作興하야 東洋中心으로의 큰 理想信念과 健着實한 勤勞道德의 生活改善과를 期하고 그조흔機運、天與의 潮流에 殘存하는일이 업시 日本內地 朝鮮滿洲一體의 基調下에 內容을 向上强化할것은 勿論、海外發展의 事業에도雄飛活躍하지안호면안될것이다。

그基本方策으로서는 幸히 朝鮮產業經濟調查會의 審議決定한 方針이잇고 그를土臺로 實行運用에 努力하야 結局 그結果를 나타내어서 中外의 認識을 굿게하여 逐次올흑이고잇는 日本內地有力者의 朝鮮進出에 便宜를 提供하야 實力增進을期圖할것이다。

더욱히 今年은 朝鮮名物의 牛에 該當하는 丑歲에 際會하엿다 모름즉이牛의努力、勤行、奉仕에 힘써서不屈不撓、希望의 光明으로 前進하지안호면 안될것이다

鑛業의飛躍期待

朝鮮製鍊株式會社社長 松本誠

朝鮮의 鑛業界도 金輸出의再禁止로因하야 活氣를呈하고 特히 數回에亘한日銀의金買入價格引上에依하야 더욱拍車를 加하야 八年以來 新鑛區의 發見이 接踵하야 出願件數는 急激히 增加하고 鑛山의賣買取引도 亦是非常히 活況을 呈하야 朝鮮의 金鑛賦存의 豐富한것이 內外에 周知되게되야 九、十兩年에 亘한日本內地有力側의 進出은特히 顯著하야 作業鑛山의 設備의擴張은 勿論 新規作業의 鑛山도增加되엿다 그中出願件數는十年의 一萬件突破를 最高로 漸減의傾向을示하고 鑛山의賣買取引도漸次減少되엿는데 그는 畢竟投資側의 힘을 鑛山經營에 專케한結果로 機械設備를 施하고 探採鑛을하는者가 激增한것과如함은 鑛業界가 堅實하여가는 證據라고 認할것으로 產金額은逐年增加하야

七年 二一、七六八、五六一圓
八年 三三、〇二三、五四二
九年 四一、五一七、八一八
十年 五四、五一八、八〇六

昨年과如함은 아직 統計가되지못한모양이나 아마 훨신 十年을 凌駕하고잇스리라고 미들뿐아니라 今後 더욱 增產의一途에잇다고볼것이다 그러고 朝鮮의 金鑛床은 大概硫化物을隨伴하고잇슴으로 乾式製鍊에 依하지안호면 充分한 採金은 되지못한다고하야도 過言이아니다 일즉이 國營製鍊所設置의 要望이 熾烈한것도 決코 怪異할것이 아니다 그러나 今日에잇서서는 製鍊所가 朝鮮各要地에 設置되야

◇鎭南浦
銅熔鑛爐 一日處理量 [illegible]
鉛熔鑛爐 同 [illegible]
◇興南
銅熔鑛爐 一日處理量 [illegible]
鉛熔鑛爐 同 [illegible]
◇長項
銅熔鑛爐 一日處理量 [illegible]
同 同 [illegible]
鉛熔鑛反射爐 同 [illegible]

와 如히 製鍊設備가되야 相當히 機能을 發揮하게되엇슬뿐만아니라 元山에는 [illegible] 業의 百噸處理와 [illegible]所를 設設中이며 三菱社도 長項에 一百噸의 [illegible]設中으로 [illegible]製鍊所도 언제든지 必要가잇스면 [illegible]을수잇슴으로 出鑛量이 今後增加할지라도 當分間은 充分處理하리라고생각된다

그러나 朝鮮에서는 小規模의 經營에適當한 金鑛이 만흘뿐外라 大概交通이 不便한곳에 잇서서 鑛石의 搬出에 困難함으로 不完全한 乾式製鍊設備로 製鍊하지안흘수업는 狀態로 採金의實收率도 自然히低하야 經營者의 不利益은 勿論 國家的損失이 만키때문에 適當地에 [illegible]製鍊所를設하야 鑛石의 品位를 노피어 乾式製鍊所에의 運送을 可能케하야 產金量의 增加를 圖하는同時에 奧地小鑛山의 經營開發을 容易케하는것이 喫緊한 要務라고 믿는다 이小鑛山을 合同하든가 또는 共同하야 選鑛場을設置함은 適當하다고 思料되나 鑛山의 評價 人事와 資金關係等 相當히 困難한 事情이 [illegible]함으로 容易하지는 아니라 總督府는 此種의 [illegible]에 [illegible]을 奬하야 그設置를 助成할必要가잇슬것이다 그러면 總督府가 現在產金奬勵政策으로서 取하고잇는 探鑛의 奬勵 鑛山道路의 改修 補助動力의 低廉供給等의 諸施策과 相俟하야 產金朝鮮은 一層의 飛躍을하게될것이다 그는 要컨대 朝鮮의 金鑛業은 前途가 洋洋하다 그러나 小鑛山이 만흐므로 그 經營을 容易히하야 金鑛開發에 [illegible]이 업시함이必要가잇다 이點에 對하야 當局者의 考慮를 願한다

參考로 昭和十年의 出願件數 其他를 列記하면 如左하다

出願件數 一〇、一五三件
許可件數 一、四四五件
處理未濟件數 一四、八〇六件
昭和十年末金銀鑛區數 四、六三四鑛區
昭和十年末金銀鑛區面積 約一二三三六〇〇萬坪
昭和十年末金銀作業鑛區數 一、六五一鑛區

朝鮮의信託事業

朝鮮信託會社社長 谷多喜磨

朝鮮에는 일즉이 信託의 名稱을 冠한 幾多의 會社가 各地에잇섯는데 其存在가 信託이라는 觀念을 曖昧케하야 드되어 實體 其名에 副치안흠이 不少하게되엇다。

그런데 昭和六年朝鮮信託業令이 施行되어 玆에 비로소 信託業의 本義를 闡明하고 不健全한 斯業者를 一掃하야 新生命에 躍動하는 有爲한 業者만으로되엇스나 此等 業者도 其規模가 極히 少하야 世上의 信賴를 널피고 半島의 信託의 新天地를 開拓함에는 甚히 遺憾된듯이 感하고 또 總督府當局에 잇서서도 此等 群小信託會社의 統制와 强力한 大信託會社의 出現에 모든 指導와 援助를 不惜하야 玆에 朝鮮財界의 有力者의 發企에 依하야 朝鮮信託會社가 생기게되엇다。그런데 朝鮮信託會社가 其組織을 整備하고 業務가 開始되자 爲先 國策에 順應하야 旣設 五信託會社의 買收統制에 着手하엿는데 旣設 各社의 事情이 各各 달라 그

買收交涉

이 急速히 進行되지 못하고 또 一般은 勿論 關係者間에잇서서도 朝鮮一信託會社主義의 實現은 困難치 안흘가하는 說도 잇섯스나 總督府 當局의 絶大한 援助와 財界 有力者의 斡旋에 加하야 旣設各會社關係者가 朝鮮의 特殊經濟事情으로보아 小異를 버리고 大同을取하야 國策에 順應하려고 眞意로써 交涉에 應하야 겨우 一年도못되어 朝鮮一信託의 實現을 보앗다

朝鮮信託會社는 朝鮮一信託의 理想을 實現하는同時에 全力을 擧하야 其經營에 努力하고 經濟界의 趨向을 察知하야 適宜한 方策을 講하야 堅實한 經營方針下에 銳意社業의 基礎를 鞏固히하는同時에 信託思想의 普及과 業務의 發展에 資하며 特히 當社創設의 一大使命인 不動產信託의 開拓에 가장 努力하고 金錢信託에 對하야서는 他金融機關과의 關係도 顧慮하야 그저 消極的勸誘方法을 採用치 안헛스나 日本內地信託業發達과 가티 當初는 金錢信託에 偏하야 開業後 三年가량은 極度의 金融緩慢과 相俟하야 金錢信託은 急激히 增加하얏스나 最近 甚한 低金利와 事業資金의 需要로 銀行의 定期預金이 停頓한것과가티

金錢信託

의 增加는 稍히 緩慢하야저서 四周年頃의 今日 四千百餘萬圓에 達하얏슴에 不過하다 그리고 日本內地 朝鮮人의 金錢信託은 겨우 三分五厘라는 僅少한것으로 이는 信託思想과 貯蓄心이 幼稚함에도 因하나 朝鮮人의 經濟力이 貧弱한것과 또한가지 가장 큰原因은 朝鮮人資產家가 朝鮮에잇서 最有利한 土地投資에 對하야 가장 興味와自信을 有하기 때문으로 朝鮮이 아직 全然土地經濟의 時代를 未脫한證據이다 此意味로말하면 朝鮮人의 金錢信託은 當分期待하기 困難하다고 생각한다

由來 信託關係는 委託者가 受託者에 絶對의信賴를 할必要가잇는同時에 受託者도 亦是絶對忠實公正히 其義務를 履行하야 委託者의 期待에 背馳치 안는것이 信託成立의 第一要件이다 따라 營業의 立場도 單只 營業本位로 되지안코 利益이잇스면 信託者에게 만히 分配한다는 主義에 立脚하지안호면 안될것은 當然하야 朝鮮信託會社의 金錢信託은 低金利의 今日 他

金融機關

의 預金에比하야 高位의 信託配當率을 行하고잇슴도 亦是 理由잇는 일이다 다시 豫想配當率보다도 實際의 配當率을 놉게함은 信託의 意義를明白히하야 信託思想의 普及에 資함이만허 漸次此方針으로 向하야 進行하지안흐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日本內地의 大信託會社間에는 最近 信託期間의 長短兩建制를 採用하야 實質로 信託에 適合한 性質의 資金을 蒐集하기에 努力하고 잇는듯하나 五年과가튼 長期의것만으로 되기는 日本內地에 잇서서도 相當한 年月을 經치안흐면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는데 朝鮮信託會社에 잇서서는 이미 創立當初부터 兩建制를 採用하야 信託思想의 徹底에 努力하고잇는터로 日本內地보다 一步압선터이다 그러나 朝鮮에서는 압서말한바와가티 經濟的으로보아 幼稚한 土地經濟의 時代이고 또 金錢信託의 大部分을 占하는 日本內地人의 經濟와 生活도 日本內地에 잇서서의 父祖의 地와가티 安定하고 定着的이 못됨도 明白함으로 此點은 日本內地와 同一치 못할것은 말할것도 업는일이다

不動產信託은 昨今 [illegible] 一千六百九十餘萬圓이라는 數字에 達하얏는바 不動產信託은 朝鮮의 社會政策上의 見地에서도 朝鮮의 信託業發展의 天地는 玆에 展開할것이오 朝鮮產業에 貢獻할수잇는것이라는 見解에서 幾多의 犧牲을 무릅쓰고 全力을 擧하야 其使命을 다하기에 努力하고잇는터로서

經營施設

의 合理化에 努力하고잇서 全朝鮮各地에 亘하야 [illegible] 今年에잇서서 旱水害를 입은 地方에서도 이미 約七萬石의 小作料를 收納하고잇는 狀況으로 不動產信託은 權利의 確保는 勿論 土地의 改良、農事의 改善等 自己經營보다 훨신有利하야 安心하고 信託할수잇도록 最善의 努力을하지안호면 안될것이라고 생각한다。不動產信託은 最初不動產의 權利의 確保를 目的으로하는 信託이 만헛는데 近來는 오히려 權利의 確保와 함께 不動產그것의 管理도 委託하는信託이 [illegible] 不動產 [illegible] 權利의確保와 管理의 [illegible] 社의 [illegible] 有利하다고 [illegible] 不動產信託도 漸次[illegible] 게 되엇다고 생각된다 不動產信託은 日本內地에 잇서서는 [illegible]히不振하야 日本內地의 [illegible] 나 不動產信託에잇서서는 朝鮮의 [illegible] 託에 따르는者업서 朝鮮의자랑할만한것이다。

有價證券信託도 最近 [illegible] 三百萬圓에 達하고잇서 朝鮮의信託業이 單只 銀行預金과 競合한다고하는金錢信託에만 치우치지안코

有價證券

信託 特히 朝鮮特有의 不動產信託이 發達하고잇슴은 朝鮮信託業의 將來를 爲하야 기뻐할것이라고생각한다 要컨대 朝鮮의 信託業은 單只 財產受託機關 又는 金融機關으로서의 營利的存在일뿐만아니라 廣汎한 信託의 利用範圍는 國民經濟上 又는 國策遂行의 使命을 貢하는 社會的公器로서 其本領을 發揮하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려고생각한다

財界의好調豫想

深井日銀總裁 談

昨年中은 一般商取引의 活況에따라서는 公債에 多少의買氣를보아 資金의需要가 顯著하야 月末에잇서서는 日銀貸出의 急增을 招來하고 그結果 兌換券의發行高는 急膨脹을 逐하엿으나 特히 年末에이르러서는 昨年末의 그것을 훨신突破하는 狀態이엇다 그러나 一方 豐富한資金放出이잇섯기때문에 短資日步와如한것은 例年에보지못하리만한 低位를 示하엿다

新年初는 納稅關係나 日銀返還金用의 資金需要가잇서서 急緩化는바랄수업다하야도 [illegible] 時期가오리라고 생각된다 金利는 割引率等 短期物은 昨年末까지 漸騰하엿스나 해를지나면 常態로 回復될것은 勿論이다

長期金利는 目下 起債談이全然업고 이를 指摘할 材料가적음으로 即斷하기어렵다 그러나 將來數年間에는 目下의 低金利에 變更이 잇지안흘것이다 最近의 財界活動은 重工業、輕工業에잇서서 顯著히 上昇을 示하고 特히 消費產業活況의 景況은 日銀의 補助貨流通高가 昨年同期에 比하야 約千六百萬圓의 增加를 示한데 依하야보아도 明瞭한일이다 이러한 狀勢와 共히 最近注目되는 現象은 一般物價의 昂騰에잇스나 [illegible] 一時的의것으로 今後는 大體 [illegible] 示하리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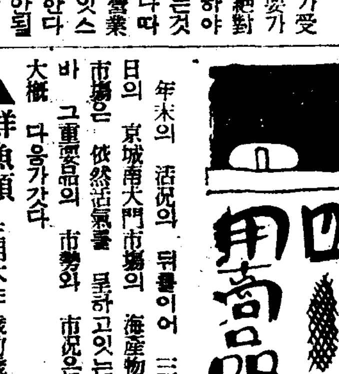
爲替에 對하야는 日濠問題의 解決等으로 悲觀視하는傾向이잇스나 반드시 그러케 생각지안는다 英日爲替는 [illegible] 傳하며 內地市場도 亦是 그를反映하고잇스나 濠毛와如함은 이미買付를 終了하고잇슴으로 그買付가 잇다고하야도 憂慮할 必要는업다

爲替政策에 關하야는 從來와 가티 [illegible] 貿易關係나 銀行의 取引關係로보아 安當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고 對外貿易은 昨年에 相當히 入超를 보앗스나 [illegible] 海外의 日本品排斥은 漸減되고잇스므로 이亦是 [illegible] 新春의 財界는 大體 昨年과가튼 好調를 볼것이다

金組創始卅週年

朝鮮金融組合聯合會長 矢鍋永三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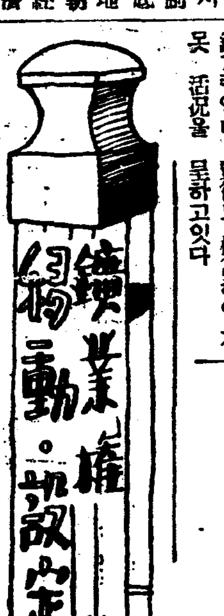
그리고도金融組合에잇서서는 昭和八年以來所謂組合戶數의 五割包容計劃을 進行하고잇는데 今年은 마츰 그最終年度에 相當하는바 多幸히 第一線各位의 不斷한 奔走에依하야 着着實績을 擧하고잇슴은 欣喜에 不堪한다 如斯히하야 殖產契의普及과 組合員의 增容과에 依하야 組合의 所謂大家族主義를 實現하야 組合機能의 徹底를 期하려하고 잇는데 前述한바와 如히 組合事業이 金融과 事業兩面의 일을하게된 今日에잇서서는 그組合員個個의 家庭에서 모름즉이 組合精神을 諒解하고이를 實行에 移함이 必要함으로 그側面工作으로 從來各金融組合에 組合婦人會라는것이 組織되어現在그 數約四千을算하고잇는바 此等의 婦人活動도 亦[illegible] 다 따라聯合會에서는 最初의試驗으로 全鮮組合의各道로부터 四十名의 中堅婦人을 招集하야 一週間에 亘하야 講習을식히엿는바 如斯히하야 各種의施設이相結하야 組合員間에 相互扶助의 精神이 徹底하게에 이르러야 組合活動은 드되어 軌道에올라서 中小產業者의 理想的安住地로되리라고밋는다 그리고 過去一年經濟界가 順調活況裡에 終始한것은 慶賀할것이나 이를國民生活上으로보면 物價는 漸騰의趨勢를 示하고 政府의 增稅亦難避한 情態일뿐아니라 歐洲政局의 不絕한 不安、隣邦中國의 動搖等 國際情勢는 依然安定度를 未知하야 所謂非常時局은 아직解消하게 되지못하얏다 今後對外貿易國內產業의 趨向에 잇서서의 波瀾曲折도 未免하리라고생각된다 此間에잇서 가장 反省을 要하는것은 古人의 所謂『重荷를 負하고 遠道를行한다』는覺悟를 養하야 組合員各個가 着實奮勵하기를 期待하는바이다



年末의 活況의 뒤를이어 三日의 京城府大門市場의 海產物市場은 依然活氣를 못하고잇는바 그重要品의 市勢와 市況은 大槪 다음과갓다

▲鮮魚類 生明太는 歲前歲後의天候의 順調로 漁獲도 相當하고 發行도 良好하엿스나 氣候의 例年에드믄 溫暖으로 入荷物의 腐敗의 度가 甚하야 市勢는 도리혀 低價를 示하엿다 그러다 小寒節을 當하야 寒勢의 到來로 入荷物은 强調를 示하야 한두룹(卄尾)에 五十五錢가량의 市勢를 示하고잇스나 產地東海岸은 波浪이 [illegible] 困難한 狀態임으로 當分入荷가 減少될 念慮가잇슴으로 市勢는 더욱堅調를 보이리라고한다 그리고 明卵은 這間의 明太의 豐漁로 製品이 產地에는 豐富하야 今日은 一樽에 上品五圓 乃至 六圓、下品은 二圓五十錢으로부터 三圓、四圓五十錢가량인데 賣行도 相當하야 자못 活況을 묘하고잇다

▲乾魚類 그重要品의 市勢는 大體다음과갓다(單位錢) 乾明太 新太하짝 一〇、〇〇一五、〇〇 同舊太 同一〇、〇〇一二〇、五〇 미역 蔚珍 灘한손 二一〇同 沙草한손 六五乾大口 斤當 二六 메르치 貫當 一、五一二、五〇 김 한손一、九〇一二、一〇一二、二五等으로 乾明太에잇서서는 新太는 天候不順으로 產地의 製造高가 激減되야 市內에의入荷가 殆無로 거의絶品狀態임으로 近日은舊太가 多量入荷되고잇다 [illegible] 은 依然不振狀態로當分 保合이며 市內의在庫도 [illegible] 김은 金羅、慶尙、黃海道等產地의 作況이 良好하고 따라서 製造도 相調로進行되야 目下多量入荷를보고잇는바 需要도相當하야 자못 活況을이루고잇다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四〇一	江原原州郡貴來面	十二月十日	京城府明倫町 李[illegible]
一三三六七	忠北忠州郡[illegible]	十二月十日	[illegible]
一三三二二	慶北[illegible]郡[illegible]面 見谷面	十二月十日	[illegible]
七五九二	江原平康郡[illegible]面	十二月十日	[illegible]
一一四四一	江原金化郡[illegible]面 北面	十二月十日	元山府本町 代表者 [illegible]
一三五七七	同[illegible]金化面	同	元山府大和町 代表者 [illegible]
一一〇三二	忠北[illegible]郡[illegible]面 文白面	十二月十日	京城府光熙町 [illegible]
一〇七一七	全南[illegible]郡[illegible]面 新北面	十二月十日	京城府[illegible]町 [illegible]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七一三八	平北[illegible]郡[illegible]面	十二月十日	廢業
一〇一六七	咸南[illegible]郡同仁面	十二月十日	廢業
九一三八	京畿[illegible]郡[illegible]面	十二月十日	廢業
一二三三八	忠北[illegible]郡永春面	十二月十日	廢業
一〇二〇六	黃海海州郡[illegible]面	十二月十日	廢業
九〇三四	平北泰川郡江西面 朔州郡水豐面	十二月十日	廢業
一〇八〇九	平北[illegible]郡龍山面	十二月十日	廢業
一二九六九	慶北[illegible]郡[illegible]面	十二月十日	廢業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三七六二	京畿安城郡大德面	十二月七日	松江常子任意脫退
一〇三〇一	慶北奉化郡小川面	十二月十日	南龍顯任意脫退
同	同	十二月十日	[illegible]任意脫退
九四〇四	黃海平山郡細谷面	十二月十日	高裕相任意脫退
一一一二〇	咸南端川郡水下面	十二月十日	金顯洙任意脫退
一二六三三	咸南北靑郡居山面	十二月十日	金正龍任意脫退

雙虹舞 【80】

方仁根 作 金奎澤 畵

사업(三)

『내가 대절하려고햇는데』하고 순철이 말하니 명월은 우스며

『주재이다 잇답니다 제가서울 사니까 주인아니에요』하고이러나며

『잠간게서요 옷입고올테니──』하고 장농에서 옷을 끄내가지고 안방으로갓다。

순철은 혼자안저서 심심한거를에 방안을 비로소 휘ㅣ둘러보니 놀랄만치 화려하엿다。방안에 가득한 세간이 모다진귀한것아닌것이 업섯다。

명월이 시골잇슬때 그녀저분한방에 초라한장농하나와 경대하나로 지내든것이 이러케까지 도호화해진것을 생각할때 순철은 [illegible]。순철은 [illegible]에 손을괴이고 끄덕끄덕하면서

『녀자란 줄세하라면 이러케쉽고도 속한게야 그도 사람될텃이지만…원체 명월은 출중하니까 그럴속도해』하고 혼자감복하엿다。

조금후에 명월은 산듯하게차리고 들어와서

『가시지요』하고 말하엿다。

『그런데 미안하구려 바븐몸일터인데ㅣ그리고 손해가 막심할텐데』

『아이 그런 말슴은 그만두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놀 아닙니까』

『글세 그걸 알기때문에 차저오기도 햇지만 좀 안됏는걸』

『세면을 차리십니다그려 충청도엄반이야 다르시군』

『하하하 천가지면 문제업지만 어쩌한걸』

『자ㅣ 어려나서요』

『그런데 한가지 청을 합시다 저 축음기 한번만 들어서 들려주─』

『아이 그건 이담에 들으서요』

『이담에 어디 틈이잇술지 아나ㅣ 쇠뿔은 단김에 빼랫다구 위선 좀 들어봅시다 시골서 명월씨 노래를 유성기에서 한번꼭 들어봣는데 참 신기하드군』

『그럼 하나만 꼭 틀러이에요』

하고 명월은 선채 유성기를틀엇다。그것은 키숨고 전기로틀려는 조흔 유성기엇다。

『그유성기는 참 조흔데』

『네─회사에서 준것에에요』

명월의 노래는 유성기에서 울리어나왓다。순철은 그가수를여메노코 유성기소리를 들으니한칭더 취미잇섯다。마치 화가나 소설가의 작품을 볼이잇는데서 보는것과가티 감흥이더욱기펏다。그흥겨한 노래를 레코ㅣ드로 돌올때 아페잇는 명월이 훨신 가치잇는것가티 보엿다。

순철은 자기가 큰명광이나받는것처럼 느끼어젓다。

『이것이 제가 맨처음 취입한것이에요 사람이란 첫사랑이니 처녀작이니 모두첫번것이 몹시 그리워요』

『그러켓지ㅣ참우리게서는 명월이 취입한 레코ㅣ드를 피만히 들 사서듯는모양인데 언젠가군수대엘갓더니말야 우리가튼 사람이 군수대에갈번한노릇인가마는마침군수의자친회갑연이되어서 청하길래갓더니 잔치웅석이나오기전에 유성기를하는데 아ㅣ명월이 노래가 나오잔컷나 그명월관에잇는 기생들도 함빡왓는데 그소리를 듯더니만』

『아이구 우리언니목소리야』

『아이구명월이 보구시퍼』

하고야단들이겟지…군수도 옷고 금융조합이사와 또앗다 명월이 아버님을 잘은 장경부와 그밧게 여러손님들이 모두감탄을하며 한참동안은그저 명월이 이야기로 판울첫지 그만해도영광이야』

『참말영광이에요…그런데 참 어대로가실가ㅣ 요리집으로갈가요 절로 갈가요 식당으로갈가요』

『그야 처분대로할개지 가자는 대로 딸아갈수박게』

『그럼 제요리집으로가서요』

『이ㄴ [illegible] 다 하시오』

『아니에요 여기도 [illegible]지안허요？그러니까 재요리집에』

『따는 그러커든─하하하』

『그래서 명월관에 제가 가면 주인기생와다고 특별대우를 한답니다』

그들은 밖그로나와 자동차를 탓다。

자동차는 서울의 저녁거리를 질주하엿다。거리의상점에서 축음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명월의 노래하는것도들리엇다。

『감상이 이상한데』하고 순철은 명월을돌아보며 말하엿다。

昆陽

泗川郡昆明面[illegible]里 私設夜學會 代表 金相浩 趙吉蒙 任宗碩

泗川郡西浦面[illegible]里 私設夜學會 代表 閔致[illegible] 崔倪[illegible]

泗川郡西浦面[illegible]里 私設夜學會 代表 金元[illegible] 金一[illegible]

泗川郡西浦面多伊里 私設學術講習會 代表 陳乙守

泗川郡西浦面仙田里 私設學術講習會 代表 徐龍水

泗川郡西浦面金津里 私設夜學會 代表 朱南律 朱文甲 朱湖權

河東郡辰橋面辰橋里 私設夜學會 代表 金玖鉉

河東郡辰橋面辰浦里 私設夜學會代表 禹烘杜

河東郡辰橋面古梨里第二區 私設夜學會 代表 金[illegible] 金[illegible] 金[illegible]

河東郡辰橋面白蓮里 私設夜學會 代表 李貫鉉 金亨善 姜興善

河東郡辰橋面古梨里第一區 私設夜學會 代表 姜廷秀 姜大見 姜吉秀

河東郡辰橋面古龍里第一區 私設夜學會 代表 李德凡 張德漢

河東郡辰橋面古龍里第二區 私設夜學會代表 鄭德魯

河東郡辰橋面古龍里第三區 私設夜學會代表 鄭宗默

河東郡良甫面桶井里 私設學術講習會 代表 鄭萬鍾

河東郡良甫面愚伏里 私設夜學會 代表 鄭綏基 金煥[illegible] 金同[illegible]

泗川郡昆明面金城里 私設夜學會代表 李圭弼

泗川郡昆明面汀林里 私設夜學會 代表 姜且允 姜在敏 姜台鉉

泗川郡昆明面[illegible] 職員一同

泗川郡昆陽文廟儒契 稧員一同

泗川郡昆陽面文廟鄉約會 總務 金泰潞

河東郡辰橋 辰陽組合

泗川郡昆陽面多率寺 香燭稧

河東郡良甫面 面長 職員 [illegible]

河東郡良甫面雲岩里 雲岩產米組合

泗川郡昆陽面[illegible]亭儒稧 代表 鄭埈用

泗川郡昆陽公立普通學校長 伊藤貞雄

泗川郡昆陽郵便所長 小川茂

泗川郡昆陽酒造合資會社 支配人 姜在寬

慶南昆陽洪醫院 洪義寬

河東郡辰橋 金廷炫

河東郡辰橋 金融組合

泗川郡昆明面長 李承鎬

泗川郡昆陽面 金漢起

泗川郡西浦面 職員一同

泗川郡西浦面仙田里 鄭龍鎮

泗川郡西浦面金津 米南得

泗川郡西浦面仙田 鄭埈商

泗川郡昆明面[illegible]里 姜庚大

河東郡良甫面長岩里 鄭求鎔

泗川郡西浦公立普通學校長 角谷虎介

泗川郡昆陽面[illegible]簡易學校 吉村謙一

泗川郡西浦面[illegible]里 神野三四郎

泗川郡昆陽面[illegible]里 申在成

河東郡辰橋酒造場 朴相珽

東拓辰橋出張所 金一成

泗川郡昆明面草梁里 李壽[illegible]

河東郡良甫面知禮里 金亨[illegible]

泗川郡昆明面金城里 簡易學校長 青野茂生

泗川郡昆明面德江亭儒稧長 李圭容

泗川郡昆明面[illegible]里 私設夜學會代表 李華辰

泗川郡昆明面作八里 私設夜學會 代表 [illegible]

泗川郡昆明面城方里第一區 私設夜學會 代表 [illegible]

泗川郡昆明面城方里第二區 私設夜學會 代表 [illegible]

泗川郡昆明面三亭里 私設夜學會 代表 [illegible]

慶南昆明多率寺 講習所代表 崔英煥

泗川郡昆明面[illegible]里第一區 私設夜學會 代表 [illegible]

泗川郡昆明面[illegible]里第二區 私設夜學會 代表 [illegible]

泗川郡昆明面正谷里 私設夜學會 第一二區代表 金容洙

泗川郡昆明面[illegible]里 私設夜學會 第一區代表 鄭道[illegible] 第二區代表 朴漢浩

泗川郡昆明面[illegible]里 私設夜學會 代表 李[illegible]玉

泗川郡昆明面[illegible]里 私設學術講習會 代表 鄭[illegible]吉守

泗川郡昆明面[illegible]里 私設學術講習會 代表 李[illegible]

泗川郡昆明面[illegible]里 私設夜學會代表 [illegible]

泗川郡昆明面[illegible]里 私設夜學會 代表 [illegible]

泗川郡昆明面[illegible]里第一區 私設夜學會 代表 [illegible]

泗川郡昆明面[illegible]里 私設夜學會 代表 [illegible]

泗川郡昆陽面[illegible]里第二區 私設夜學會 代表 [illegible]

泗川郡昆陽面興士里 私設學術講習會 代表 鄭[illegible]實

泗川郡昆陽面大津里第一區 私設夜學會 代表 [illegible]

泗川郡昆陽面大津里第二區 私設夜學會 代表 [illegible]

泗川郡西浦面[illegible]里 私設夜學會 代表 金[illegible] 金[illegible]

盧屋

阪神消費組合盧屋配給所 朝鮮日報盧屋販賣所 朴杜範

製綿業 金一千

[illegible]青年會 會長 李敬哲 副會長 李泰運 總務 李水萬

朝陽親睦會

金琪煒

[illegible]青年會 團長 洪敬武

永泰藥房 主 韓炳文

西宮市[illegible]町一七番地 [illegible]綿布 白米各種 日用生活品 安泰云商店

兵庫縣武庫郡精道村[illegible] 金洪俊

[illegible] 文吉

兵庫縣武庫郡精道村盧屋[illegible] 金漢光

兵庫縣武庫郡精道村盧屋[illegible] [illegible]基澤

李[illegible]

朝鮮物產商 李[illegible]

[illegible]興業 [illegible]